朝鮮日報

購讀料 壹枚金四錢○一個月八十錢○郵稅一個月拾五錢○二個月先金郵稅並九十五錢○六個月先金五圓四拾五錢○一個年先金十圓八十錢
廣告料 五號活字十五字詰一行金一圓廿錢 特報欄內金二圓○四號活字十字半詰一行金二圓七十錢○二號活字七字詰金二圓四十錢○特別割增
編輯兼發行人 金容熙 印刷人 弘邦
發行所 京城府水標町四三番地 朝鮮日報社 長電話本局二二五六番 振替口座京城四○九九番

撫順에移住한同胞의慘境

滿洲奉天省撫順縣地方에移住한朝鮮同胞의慘境은日昨本紙에긔의報道한바이어니와 人의全身에健康할지라도一指만咬嚼하면痛切치안이할수업는것과갓치우리同胞가一般的으로圓滿한幸福을享樂할지라도그個中에一人만憂患疾苦에罹하야呻吟한다하면聞하고見하는바에矜恤하고哀憐함을能過치못할것이어늘 더욱이諸瑟한現狀을身邊에滿帶하고蒼茫한遠路를眼前에迷掛한吾人으로殊域의風霜을飽經한數千同胞가그와가튼慘境을그와갓치困處함을忽聞하고보니無限한同情과無量한感慨는何辭로써形論함을知치못하겟도다 人間에循環하는公運은一苦가盡하면一樂은有하다하거늘우리同胞는礫石을僅避하면盤石을更逢한다는俗談과갓치來하나去하나到處마다辛苦뿐이며悲慘뿐이라할가 果然으로져蒼天을一仰하야에恨淚를滿灑치안이치못할것이라하노라

그同胞가그地方으로移住한最初原因으로말하면再問할것업시別問題를緣함이안이라五六十年前부터木土되는이半島內에는人口의繁殖과時勢의變遷으로民衆生活에困難이轉甚하니그中에飢寒을堪耐치못하는無産同胞는頭를擡하고廣漠한이天地를環顧하야口腹을充足케할一區別界를破大荒的으로尋求함에는三春漁子가武陵의桃花를逐上함과갓치或先或後하야豆滿江을渡하며鴨綠江을越하야露領中領等地로貧戴互往함이年復年來에一大趨勢를引出함은吾人의記憶이生新한것이라할지라 이와갓흔趨勢는交通의便利가日開하는撫順方面에도自然히波及이되는同時에우리同胞의移住가漸次增加하야現在의狀態를成한것이라 그리하여그地方으로一次移住한後에는中華人의淳朴한風俗을間隔업시相依하며幾百年을荒廢한沃土를拘碍업시耕農할새地稅水稅、種子等의雜費는該地慣例로地主側이負擔하고落種、移秧、灌漑等의方法은朝鮮獨特인水田式을利用하야升斗를種하면石을收하는天富의農功은十四相分이나十五並作히연終年勞力으로新舊를能繼하고도貯蓄에尚裕하야그生活이安穩하니故國을南望하고過去의艱辛을回想하면春風秋雨에餘夢만依稀할뿐이엇도다그리하더니六七年前부터日本人의大松號라하는會社가組織되여附近의土地를多數히買入하야農業을經營함에는一切小作은依舊히朝鮮同胞에一任하고一應讓用은亦然히該地慣例를一遵한다하엿스나그의謀利的規模가去益緻密하야昨年부터는地稅,水利稅,種子等의費用은並히小作人된朝鮮同胞에게負擔케하고種子를地主가先當하면秋收後에倍額或은五割의利息을附하야徵收타가不足이生하면住宅까지抑奪하고赤身만逐出하니茫々一世에向處업시窮立한그情形은更比할데업는慘憺이라할러인데 善事는難則이라도惡事는易效라함과갓치此를見한中華人은此를效則하야그와갓치苛重한小作制度를往々히施行하니小作인依賴하야耕農養生하던朝鮮同胞는二重의困難에陷하엿도다

이러한事情을擧하야朝鮮人會에呼訴한結果로警務署에交涉하야殷重한說諭가잇슴을因하야地主된日本人이謝罪는하엿스나그制度는改正키를吝惜하니朝鮮同胞의農業은更繼할可能이업는지라 全部가그地方을撤退코져運動함에는移轉費의準備가잇던同胞는北滿洲로旣移함도或有하나此는少數이오移轉費의準備가업던同胞는去留兩難의地頭에蹲坐하야小作制度의變更만日俟할뿐이라하니悠々한乾坤에木石에도依附할곳이업시그慘境에胥溺한그同胞의情景은實로胸膈이先塞하야形言키가難하도다

그런데自己의能力을가지고自己의利益만取코져孜々營々함은此世上此人心의同然한것이니그와가튼利己主義下에서그와가튼小作制度를翔始한日本人이나또는效則코져하는中華人의誅求나排斂에愈刻愈甚함을怨尤할것이안이라內이나外이나能力업시赤手의剛力만가지고生活을苟圖코져하는우리同胞의事情이當初에可憐하고可哀한것이라하지로라

그러나此制度를翔始한日本人이나此를効則하는中華人으로말하면利己心은幾分이나發達되얏다할것이나人類生活의原則은無視한것이라謂치안이치못할지니能力만憑恃하고異域에飄泊하는人命을薄待하야渙散에渙散을加케할진된그와갓흔利己主義는究竟에天然的障碍를遭하야中撤이되고야乃已할지니 此는斯速히變更하야彼此에圓滿한生活을共圖할것이며 朝鮮同胞로말하면最初에그地方으로移住함이上述함과갓흔生活難의驅逐力을因함이니 그와갓치驅逐力을抵抗치못하야一逐二逐으로愈々히流離遷徙만할진된天涯를窮하고地角을極할지라도그驅逐은盡할日이업고그被逐은免할處가업시그中間에서漸盡滅盡할뿐이니이는眞實的으로極悲極慘한末境밧게는他道가更無할지라

그와가튼消極的運動에나希望을企圖하던지懷抱할것이안이라發憤하며奮鬪하야千困萬難이頭上에壓到할지라도此를排除하며制止하야頑도하고和衷도하는幾多經路를閱涉하야그生活을安全히維持하며그産業을充實이啓發케할것이라하노라

印度民族運動의眞相 (二)

그러하던印度의産織界로써英國의勢力이侵入한後로부터打擊을一被하니英國의棉織物이英國의對印輸出上主要品을成하야印度의土布製造業은並히英國의工廠으로부터掠去하야淨盡하니最近印度에서英國布屬의入口가每年에九億『루비』에達하야入口總額의四分一을占領함에는印度의土布는消費할販路를英國布屬에게讓失함과同時에幾千萬의印度農民은遊衣遊食하야職業을蕩失하는境遇에至하니 이로부터印度의農民은經濟上生活上에至大한影響을受하야極度의困窮을免치못하엿다 그리하더니『간듸』一派의非協同主義者가英國布屬을抵制한後로부터外布의輸入이百分의二十五를減함에至함과共히英國『랑카세르』의棉織工廠이此로因하야恐慌을引起하엿도다 이러한排斥運動은平民과中等階級의附和가最有力하고富戶의贊同은幾分이못되다하나그運動費를募集함에當하야는三個月에못되여一千萬『루비』를募集함을得하엿다하니錢財가有한人도大段히情願으로幇助함은可知라할것이로다 이갓치하여三個月內에組織한非協同協會의會員이一千萬人에達하며또그同一時期內에二百萬架의新式手織機를造成하고幾百萬『루비』價値의英國布를焚燒하니그運動者의大部分은土製로著名한『산되』帽(산되)가發明하야新製한것입으로『산되』帽라仍稱하는것이라)를並戴하고土布의衣服을共着하야閃々한赤脚으로簡單한禁慾生活을實行하니此를見한英政廳에서는屢次에亘하야此를干涉하며禁止하엿스나非協同運動은依然히進行하야始終이一와如히進行함에는三百餘萬方哩에涉하는大地山河에瀰漫하야密雲갓치印民의意志를凝合하며和風갓치印民의活氣를鼓發하야廢止할것을知치못하며減退할것을或念치못하니그와갓치勇往銳進하는그地頭에는壓迫도妨害도並히顧忌치안이하며關係치안이하야于今數三星霜을閱하는間에그의大々的擧揚한效果는質上歐亞兩面의關鍵을剝喙하야兩文明의盛衰를一賭하는一機樞이됨과共히世界的大問題가되엿나니그와갓치微細한方法으로이와갓치巨大한局勢를打開함은또한不可思議의事가안이라할수업는것이로다 이러한印度의非協同運動은確實히目下의重大한一個大事情이라할것인데 이러한運動이果然으로成功이되여印度로하여금英國의羈絆을脫離하야獨立할日이果有하다할진된 이는確實히證明할만한新經驗과新事情이라謂치안이할수업는것이니 이러도또한一種革命으로惡勢力을反抗하며掠奪階級을滅除함에驅定코暴力을要用함이안이여서炸彈이나槍劍을除去하고그밧게一條平和의坦蕩한路와如히濶開하엿다함이니 이는民衆의精神的結合으로惡勢力으로더부러協同치안이하는消極的法方의表示이라할것이다

露國의研究 (三四)

黃痴生 譯

勞働者를代表한것이라고 說明하얏는데『쏘스세ㅣ도』는此로써 事實上消費者로써無産階級을代表한것이라고看做하야次와如히論하얏다

『區에依하야選擧한 即地域的基礎에依하야選擧된다고云하는것은 엇지하얏던지在來國家의可憐한遺物이라고할지로다 만일在來國家의遺物이라하면 진실로可悲할만한것이다 그러나그것은確實히 國家의外觀과機能을失하얏다 그런데彼等은別로히 一層有用한機能을行하얏다 即彼等은 消費者를代表삼은것이다 勿論、消費者의代表로는 充分하지못하나 그것은될수잇는데로는 消費者의男女를代表하야 玆에婦人에게選擧權을賦與한것이다』

此代表方法의目的이 明白히無産階級을消費者로 代表삼음에在함인가또그러치안이함인가하는것은本來明白하지안이하다 그러하나假令『소베ㅅ트』의選擧를 工場과勞働組合에限하면 現在社會에欠하지못할 勤勞히從事하는大多數의婦人이『소베ㅅ트』로부터除外될것은明白하도다 玆에『보스도게도』의指摘한法과갓치生産者勞働組合以外에『소베트』와如한政治組織을認하지안이하는『산듸가리슴』에行하는境遇에는 그無産階級獨裁는 同時에多數한 無産階級婦人에게對하야 男子에獨裁를意味한것을 忘하지못할지로다의註釋에依하면 無産階級을

(四)議會主義的階級意識에 比例하야代表한것이다 但此代表方法은 人員에던지 意義에던지 그러케重要한것은안인데 要컨데各政黨의重要人物이 確實히『소베ㅅ트』에 入할模樣이엿다 各政黨은無産階級의間에잇는 黨員의多少에依하야 自然『소베ㅅ트』비에 代表가될터인데 엇더한境遇에는 黨의首腦者인人物은 反히落選되얏다

그의結果、各政黨의意見이充分히『소베ㅅ트』의中에現하지못할念慮가잇섯다 各政黨의主要人物은特히經驗과知識이잇는人으로부터그의協力은 過渡期에建設의事業이必要하얏다

以上은一九一八年四月의莫斯科市『소베ㅅ트』選擧의方法인데 以後多少間改變이잇는것을 詳知하지못하나 大體는 今日과맛흔方法을取하얏섯다 尙히現行憲法의布告된 것은 同年七月十日에『소베ㅅ트』의選擧에關한規定은 此莫斯科『소베ㅅ트』의選擧方法을基礎로삼은것이다

右代表方法에依하야 一九一八年四月選擧의結果는 三百九十四의工場其他로부터 八百三名의委員이當選되얏다 그리하야四月二十三日의最初會合에 出席한七百三十三名의委員의 黨派別은 次와如하얏다

朝鮮古今人物 (三〇)

尹孝孫

尹孝孫의字는有慶이니南原人이라兒時에能히文을屬할줄을알더니其父가議政府의錄事가되야淸晨에相臣朴元亨의門에往候하미閽人이相公이起寢하지안이함으로拒하야通하지안이하니日晚에飢함을忍하지못하야其家에歸하야孝孫다려일러曰余가不才로써如此히辱을受하니汝는須히學業에用力하야爾父와如하지말지어다하거날孝孫이깁안이其父名刺의尾에다詩一首를書하야曰『相國酣眠日正高,門前刺紙欲生毛。夢中若見周公聖,須問當年吐握勞』라하얏더니翌朝에其父가寧視하지안이하고또元亨의門에往하야投刺하니元亨이其詩를見하고問할에召入하야問하야曰此詩가爾의作한바이오아거날孝孫의父가驚惧失措하야그의字畫을審視하니其子孝孫의筆이어날乃히實告한다元亨이孝孫을召至하야見한즉穎悟非凡하거날極히奬歎을加하고婿를삼고자하야其妻다려語하야曰吾가今日에佳婿를得하얏노라하니其妻曰我女가엇지可히錄事의子로더부러婚如하리요하거날元亨이不聽하고맛참니其女와結婚하다世宗三十二年庚午에生員이되얏더니端宗元年癸酉에登第하고世祖丁丑에重試하야苦人을歷하다孝孫의世家가本來南原이라其親을奉養하되親히山水에漁樵하야甘旨를供하고節日獻壽에는嘗히一曲을製하야曰『北有屯山嶺,南有智異山,願借兩山壽,萬歲奉慈顔』이라하야先지歌하고또把舞하야悅親함事는비록兒孩의戲弄이라도爲하지안이하는바가無하더라出하야全州府尹이되얏더니政事가仁慈하면吏民이愛服함으로嘉善에褒陞하다孝孫이三次出守한것은모디그의親을爲함이라長興에在하얏슬셔에는父母가雙存하야日로奉養이不絕하고親히 甘旨를 供하더니其後全州羅州를守할셔에는父가已沒한지라 其母를 衙中에奉하고別廚를置하야其妻로더부러親히甘旨를奉하야비록賓客이至하더라도반다시其由를告하고入하야進饌한然後에야出하고郡氏를遇하면境內에年老한者를問하야날마다酒肉을致하니郡民이感動하는者가多하더라孝孫이一弟가有하야資産이少하니其母가恒常念慮하거날孝孫이粟一百斛과奴一人을與하니其母가悅하야孝孫의背를撫하며曰吾의孝子라하더라孝孫이家에居할셔에는子孫을敎하되忠孝와誠信으로써爲主하며人을接하되一次도冗語가無하야恒常溫和한氣象을不失하더라官이海西觀察使、崇祿左參贊에至하고燕山癸亥에卒하니年이七十三이라諡曰文孝라하다

悲劇 막베스 (十八)

沙翁原作 梁夏葉譯

第三幕

『왜그러한말삼을하시고 게십닛가요? 그러한말삼은두시요! 그러한말날을하신다면 오날서지秘密히하여오든우리의일을 그만저ㅣ사람들이알것이안입닛가? 오날서지우리의秘密을아는이가업싸온데 만약여러한일로써 우리의秘密히顯露가 된다고할지면 이는陛下께서나저이나다ㅣ한가지로안된일이안이오닛가?……』

이와갓치막쎄스夫人은 막쎄스王에게말한結果로 이셔셔지막쎄스의마암속과눈압헤얼넌거리든幻影은지우살아지려고하얏다 그리하야『아ㅣ나는 우리나라 國民들의幸福을增進식히기爲하야서 녯날부터듯기도무셔옵든 殺戮이란것을하게된것이다 이것이나自身만爲하야 한것이안이고 우리의國民아지爲하야한것이엿만은…… 안이다안이다 무엇이든지한後에다시말을써너이는것은안된일일뿐만안이라 丈夫로서는못할바일다 그리고또네前에한바를 이제에와서뉘웃친다면 그ㅣ者는참으로人間의面目이업는者일뿐더러 살아잇는者가못되고 죽은者이될것이다 그럿타그럿타ㅣ그는반드시죽는놈일것이다 아ㅣ그러한者들이 이제에 와서속마암으로얼마나한 苦痛을當하고잇슬는지몰으는것일다 나와갓치몹시苦痛을當하든者가 그러도平氣로잇셔날터이다 아ㅣ저ㅣ者는(이미죽은방코를稱하야)나셔븐에致命傷을當한者이다 二十餘곳이나몹시써근남을바든者이다 그리하야저ㅣ者는일셔나가지고 나의椅子를쎄아스려오는것이다 이것을엇지하야그되는못보고 나만도리혀、貴치안케구는야?……』하고말하얏다 이말을듯는夫人은『그러나그리나 精神을차리십시오!남들이 異常하게녀엽니다요』하면서 막쎄스게로갓가히당니여를셔막쎄스는져우精神을차린듯커『아아! 여러분께失禮를만히하야섯습니다 나에게는엇엇습셔부터異常한病이 잇섯슴으로 이것을아는사람은 別로怪異하게 녀여지안을것이로다……아ㅣ나에게도술을부어라! 저ㅣ여러분의健康을빌겟다……그리고이자리에는엇슬지나 나의親한벗방코의健康도빌것이다 자ㅣ한盞가득히부어다고!오날저녁晩餐會에參席한滿堂의人事와 저ㅣ나의親友방코의健康을祝伏하기爲하야 이술잔을들겟노라!』하고 또리커여自己의玉座로갈나고하얏다 그러나방코의亡靈은 아직저지도永久히살아지지안코 막쎄스의또라스는눈압흐로 또얼넌거리얏다 이것을보는막쎄스王은 다시『아ㅣ아 너는나의 눈압헤뵈이지말고 저ㅣ리로가거라!저ㅣ어두운생속으로가거라! 그리고나의눈압헤는 뵈이지말어다고』하면서 다시소리를놉히질으며 썰엇다 얼마만치安心하고잇든王妃는 다시이소리를듯고 얼는여러사람들의귀에그말이들니지안케하느라고『아ㅣ여러분 그것은여러해前부터잇든病으로알으시고 다ㅣ여러분의자리로着席하심을바라노라』하며 크게高喊을질넛다 그러나여러貴客들은 입의막쎄스王의狂態를보고 여러가지의疑心을품게되얏다 그리서엇더한이는興이업시멀거니안자잇기도하며 또엇더한이는 彼此에말을건늬고밧기도하얏다 이러는동안에막쎄스王은空中에얼넌거리는방코의亡靈을보고 두번지問答을하얏다

詞藻

有感

天然子

麥秀歌已去 黍離周何在 可憐新亭淚 楚囚空相對 班超已投筆 祖逖更揮鞭 寧堪爲牛後 豈忍作虎前 梁肉難治病 揖讓非救火 彼者竟何意 執彰尋眞我 夢中猶說夢 狂處欲醫狂 旣離蹈東海 何不歌滄浪 幾伸飢鵝頸 復叅野狐禪 早入蠶簇屐 陸地推舟船 敢豈仲尼几 妄借周公衣 盜門說仁義 梟前訟是非 燕石終非玉 沐猴空效人 俎豆觀兒戲 經綸掃地塵 爲虎傳飛翼 與狐謀白裘 爲公將爲私 喧噪使人愁 暗把陰陽手 莫藏廢柱瑟 雖非齊庭人 安知投閣日 性本見草悦 形將逢南畝 莫貽猿鶴嘲 早辭風塵愿 歸去岩穴間 十步求一啄 心判靜閑處 回頭應自覺 今日是何日 醉夢尙茫然 傾家買舜槐 行乞九府錢

東舌西話 (四三)

露西亞의奇異한結婚法

閔藕齋 譯

露西亞의『스모러ㄴ스크』라는곳에서는一年에四回의新婦富籤을發賣한다는데그富籤의方法은진실로奇異하다고할만하니爲先富籤의價格이一『루ㅣ블』(一圓可量)이니五千枚를一口로定하고本年된處女一人을選擇하야富籤을當한收入金을持參金으로하야其處女에게與하야其處女는當籤된男子와結婚을한다는데萬若處女의便에서新郎을不合하게녀기어는時는富籤의半金을新郎에게分割하야주고自由의몸이되며또는新郎의便에서新婦를不合하게녀이는時에는自己가定하엿든新婦를他人에게讓渡를한다는露西亞의一種滑稽的結婚法이라하더라

獨逸馬克紙幣販賣
▲案內書進呈 要二錢切手
獨逸은復活乎?破滅乎? 弊店은學者의說과世界大勢를참작하야同國의復活될줄로確信합니다此際에多數馬克을買置하심을推奬하나이다
京城南大門通 玉田洋行 振替京城二一七

職業 ●熟練=三圓以上●特約店募集 專賣特許遠近男女自宅執務出來無休上器具貸與製品永久買上 見本進呈 說明書大募集 大阪玉造舟橋町市車停留前 豊國總本店

職業 ●熟練一日二圓以上(一郡一名限特約店許可) ●●●新案美術고무品製造法地方通信敎授 新案美術고무靴修繕法地方通信敎授 年中無休自宅就職器具貸與製品當店買受 ●事業案內書二冊壹萬部限하야無料郵送함 京城府太平通二丁目大漢門前 太陽고무商會

모든가려운병에신효함
개선(疥癬)약은
●개선슈의효험 이약은재반의치병중에창(오ㅣ음병)과소양(피풍)과고름과습창과현중창동기타가려운중에다신효하오
●쓰는법 쓰는법은하로세번식당처에붓으로바르고솜등이나하는데는냉수에사발에혼화하야쓰스면즉효하오
疥癬水 定價 小瓶入金五十錢 大瓶入金九十錢
東西洋各種製造藥販賣 京城蓬萊町三丁目四十四番地 普信堂藥房 主 鄭泰永

感謝廣告

本人等이定望을爲하야京城府黃金町四丁目六十三番地大昌社喪事部에入社하온지不久에望하엿든喪을當하얏는바同社에서遠路임을不拘하시고各個遭喪家一々히社員을派送하시와靈歸極樂을吊祝하여주신後葬式의對한諸般費用과已納하온入社金全部를支拂하야주시와不意의喪變을當하고忙之所措하든차의萬々緊用이엿슴기로該社信用의確實홈을感謝하는同時에吾人生活上如此흔機關이不可無홈을一般同胞諸位에게謹告하나이다

1	許浚	京城府黃金町七丁目一○六
2	金宗得	京畿道高陽郡龍江面孔德里五八二
3	李文會	京畿道抱川郡蘇屹面梨谷里二四七
4	盧貴姃	京畿道始興郡北面鷺梁津里二五
5	成龍澤	京畿道高陽郡恩平面鷹岩里三七○
6	高光先	京城府蓬萊町四丁目二三九
7	朴熙福	京畿道楊平郡丹月面寶龍里三九九
8	李時雨	京畿道富川郡南洞面萬壽里六九六
9	金弘植	京城府中林洞三一四
10	金錫顯	京畿道高陽郡延禧面新村里九五

英鮮對譯 偉人의聲 八十錢
英文研究의良師友、作文講演의好參考。
京西大門外峴阿峴洞 振替京城二四六一 文昌社

全州多佳町三六番地 多佳旅館 主 權斗皓
兼朝鮮式乙種料理 親切丁寧 衾枕具備

萬病根治法 紅精醫術通信敎授
◎全鮮各地分院長募集=資格(朝鮮人은普通學校卒業程度以上 日本人은高等小學卒業程度以上)
◎諸博士證明付規則書 郵券拾錢封入者에限하야附送함
元山府南村洞東洋紅精治療院本部
規則書는本部又는道支部에서發送홈

奉天十間房 華鮮洋行 總經理 金臣鎬 執事 劉盡昌
滿鮮特產物貿易輸出

仁川府外里二百三十番地一號 (前廣通社跡) 順天醫院
內科 外科 小兒科 產婦人科 花柳病科 入院隨意 診察無料

삼용보익수

男女는勿論하고補陰補陽에特効나
○病後虛弱 ○飲食不振 ○消化不良 ○氣虛血虧
○腎虛腰痛 ○氣喘痰症 ○咳嗽勞傷 ○遺精夢泄
○下焦虛冷 ○手足厥汗 ○虛汗盜汗 ○其他氣不足諸症
一個月分 圓 二個月分 七圓五十錢 三個月分 拾壹圓 郵便每月分 七拾錢
此藥을引換郵便으로注文하시라면郵料七十錢을先送하시오不然이면酬應치아니홈
滿州北本町四一番地 代理販賣店
京城鐘路一丁目(電話二○一一) 株式會社 模範賣藥商會

赤仙膏 적선고 萬病仙藥 惟一無二 定價五十錢
腫瘡界에 儼然一大聲
諸般惡瘡以外에 內瘇血積連珠及 癰疽乳瘇 背瘡等을保証必治
朝鮮滿洲에特約店及分賣店을募集홈 細則及說明書는請求次第送呈홈 但地方에는代金引換으로홈
全羅南道康津郡 金聖祐氏의製造
本舖 京城府三角町五十九番地 赤松堂 振替口座京城二○三七番
赤松堂 鮮滿代理店 京城府笠井町百二十五番地 一新藥房
現在特約店所在地名
江景中町 黃重元、群山榮町 宋洙桓、全州本町 宋化中、新泰仁驛前 姜憲秀、扶安邑內 姜台欽、萇浦市 金容植、木浦湖南町 金潤定、康津郡 金詩昌
來二月末까지特約店을設置하시는人士의게는破天荒의特典이有합니다

◇—中國政局—◇

奉天學生檄文宣布

(奉天發電) 奉天省의 日本留學生一同이 二十一個條에 對하야 長文의 檄文을 宣布하얏는데 張作霖氏가 依然히 中立의 態度로 彼等의 取締를 勵行하더라

上海日貨排斥決議

(上海二十二日發電) 二十一個條及旅順大連回收問題에 對하야 上海의 市民은 激昂하고 且町內商業聯合會及學生等은 皆我國의 主權을 無視하는 橫暴한 日政府에 報復하기 爲하야 日貨排斥을 決議하고 目下準備中이더라

威海衛還收交涉開始乎

(北京二十二日發電) 英國公使와 黃外交總長이 協議한 結果 威海衛回收에 關한 交涉을 北京에서 開會하기로 決하고 二十六日兩國委員이 會合하기로 하얏더라

黃外交總長辭職

(北京二十二日發電) 黃外交總長은 對日外交問題로 辭職하얏는데 大總統이 아즉 辭職을 許可치 아니하얏스나 黃總長은 二十二日부터 視務치 아니하고 後任者에 對하야는 黃總長이 何人도 推薦치 아니하얏더라

民國報平和統一絕望論

(上海二十二日發電) 上海孫文派의 機關紙民國日報가 張紹曾內閣이 吳佩孚氏에 屈伏하야 廣東福建의 督理를 任命한 事를 論述하야 日此는 北方軍閥이 故意로 統一을 破壞함인 故로 此에 依하야 平和統一이 絕望이 되얏다 하엿더라

◇—歐米情報—◇

米國務卿對露演說

(華盛頓二十二日發電) 米國國務卿「휴쓰」氏가 婦人國際平和及自由協會에서 演說하고 勞農露國이 米國의 承認을 得하기 어렵지는 世界革命政策을 放棄하고 露國의 負債를 破棄하랴하는 態度를 撤廻하고 國際的修交의 妥協에 因하야 其義務를 不可不承認할 것이라 하고 又曰 露國이 近者에 經濟에 關한 法律案을 修正하얏스나 아즉 充分치 못하다 하얏더라

華府會議後廢艦數

(倫敦二十二日發電) 華府會議以來로 廢艦噸數가 約二百萬噸에 達하얏는데 其中戰鬪巡洋艦三十五隻 巡洋艦八十三隻 驅逐艦二百八十三隻 水雷艇九十五隻 潛水艇百一隻이더라

瑞西聯邦會議協定批准拒絕

(巴里二十二日發電) 瑞西聯邦會議는 佛國과 協定한 「사보이」協定을 批准하기를 拒絕하얏더라

聯合國社會主義者會議 賠償問題審議

(巴里二十二日發電) 巴里에 開催한 聯合國社會主義者會議는 英、佛、伊三國代表者가 獨逸社會主義者와 賠償問題를 審議하기로 決議하얏더라

貴族院會議 本會議 二十一日續 陪審法案

(東京電) 日本貴族院本會議는 廿一日午後一時四十分에 再開하다

▲若槻禮次郎氏 反對演說을 繼續하다

▲若槻氏 政府는 國民은 國의 行政에 參與함으로 國民을 裁判에 參與케한다 云하는 바 國民은 自治行政에는 參與하나 國政에 參與한다고 云키 難하며 그러나 死刑或은 無期懲役만 陪審員을 置하얏다 함은 何等의 効果가 有한가 歐米各國의 陪審狀態를 論하야 其弊害를 擧하고 一般國民은 決코 如斯한 者에 滿足하는 바 아니오 當選을 阻止하는 政府가 陪審法이 立憲의 見地上으로 必要하는 矛盾도 甚하다하고 貴族院의 諸公이 아니면 到底히 此陪審法案의 得失을 論斷할 것이 아님으로 熟考하기를 望한다 고 喝破하고 前內閣에 衆議院에서 本案이 通過한 事를 背景으로 한 輿論이라고 云하나 今의 衆議院에는 政府를 支持하는 與黨뿐임으로 政府案이면 好惡를 不問하고 此를 可決한 後此를 國民의 輿論이라 云하는 바 如斯한 獨斷을 果然輿論이라 云할가 裁判官과 辯護士를 敎練하기 爲하야 歐米에 派遣하고 陪審의 必要를 宣傳하는 等實로 可笑롭도다 又憲法論에 入하야 陪審法은 憲法에 抵觸하는 實例를 指摘하고 岡野法相의 答辨內容을 引用하야 論駁한 後諸君의 卓上에 在한 法案은 憲法違犯이니 諸君은 此憲法違犯案에 贊成할가 尙且論旨를 進하야 陪審法施行의 結果裁判에 澁滯가 生함에 明白하고 그러나 良民인 審員의 一身을 束縛하야 甚히 困難을 感하고 且被告人으로 부터 意外의 怨嗟를 受함과 如한 事가 無하다고 斷定키 不能하고 又我國의 財政이 窮迫한 今日에 何故로 如斯한 陪審法을 急遽히 施코자 하는가 政府는 陪審等에 拘泥치 말고 充實한 司法官을 養成할 事를 思考하라고 結論하다

▲花井卓藏氏 登壇 余는 第一에 陪審의 沿革, 第二에 憲法違反, 第三에 自己의 見解를 述코자하노라 前提하고 明治十八年及二十二年의 勅語로써 陪審制度가 施行됨은 憲法上으로 見하야 遲延된 感이 有하며 明治九年及八年에 參座이라 하는 者를 設하야 裁判에 參與케 하얏는 데 實例를 擧한 後此가 實로 陪審이라하야 議場을 傾聽케 하고 更히 若槻氏의 所論은 其不當한 者이라 하야 論駁하고 且刑法論에 移하야 事實의 認定은 裁判에 至하기 까지의 過程이나 認定其自身은 裁判이 아니오 事實의 認定을 基礎로 하야 法律을 適用함이 어서 소 裁判이니 此陪審은 訴訟手續의 一部이라고 解釋할지라 事實의 認定을 裁判이라함은 絶히 一顧할 價値가 無하도다 我國憲法에는 裁判과는 事實의 認定及法의 適用을 云함은 規定치 아니하얏스며 又陪審員의 名義로써 裁判하는 國은 全無하니 即陪審員은 訴訟法上의 事實을 認定함에 在하니 憲法上의 裁判이 아니로다 若槻氏는 事實의 認定을 裁判이 아니라고 云함은 詭辨이라고 稱하나 如斯히 云함은 反히 詭辨인줄로 思惟하노라 最後로 法律은 稀有한 事를 想像하라는 金言이 有하니 決코 若槻氏와 如한 杞憂는 何等의 效果가 無하다고 詰論함에 時는 午後二時三十五分이며 此時에 議長이 休憩를 宣言한 後 午後八時三十分에 三次開會하다

▲花井卓藏氏 再次登壇하야 陪審法案은 憲法違反이라고 斷定할 者이 何樓樓數千言을 論述할 必要는 無하며 簡單히 憲法違反이라 云할 뿐이라 하고 多數한 材料를 藉하야 事를 彌縫할 必要는 無하다고 痛罵한 後憲法違反이라고 認치 아니한다고 喝破하고 陪審에 依하야 利益이 多大함을 論述하야 陪審의 反對論에 痛擊을 加하다 現代의 國民은 決코 官僚의 根斷的裁判을 喜悅하는 바가 아니며 本案은 若槻氏의 云한 바와 如히 辯護士仲間의 利益을 爲하야 提稱된 者이라함은 不當하도다

▲目賀田種太郎男 余는 參座로써 陪審의 意味이라고 思惟치 아니하노라 云함에 對하야 花井氏가 反對의 意見을 述하다

▲目賀田男 花井君과 余는 意見이 相異하니 議論에 止한다 하고 質問을 中止한 後 山脇玄氏가 反對論을 述하다

▲富谷鉎太郎氏 本案은 裁判에 未定을 加味한 者이라 余는 此에 贊成한다고 贊成의 意見을 述한 後 降壇하다 에 西大路吉光子가 討論終結의 動議를 提出하야 結局成立하고 記名投票한 結果 二讀會에 移함에 贊成者가 百四十三名, 此에 反對하는 者 八名 即百三十五名의 差로 二讀會를 開하고 三讀會를 經하야

可決確定한 後殘餘의 日程을 延期하고 十一時五分에 散會하다

中國裁兵準備와 軍隊

中國張內閣이 裁兵實行準備로 調査한 全國軍隊一覽表가 如左하더라

隊別	統兵官姓名	駐紮地點	兵數
中央			
第一師	蔡成勳	江西南昌	一萬
第二師	孫傳方	湖北宜昌	一萬
第三師	吳佩孚	河南洛陽	一萬
第四師	陳樂山	浙江	一萬
第五師	鄭士琦	山東濟南	一萬
第六師	齊燮元	江蘇江寧	一萬
第七師	吳新田	陝西	一萬
第八師	王汝勤	湖北	一萬
第九師	陸錦	北京	一萬
第十師	盧永祥	浙江	一萬
第十一師	馮玉祥	北京	一萬
第十二師	周蔭人	江西	一萬
第十三師	王懷慶	北京	一萬
第十四師	靳雲鶚	河南鄭縣	一萬
第十五師	彭壽莘	直隸欒州	一萬
第十六師			
第十七師			
第十八師	盧金山	湖北	一萬
第十九師	楊春普	江蘇江	一萬
第二十師	閻治堂	陝西漢中	一萬
第廿一師			
第廿二師			
第廿三師	王承斌	直隸保安	一萬
第廿四師	張福來	河南鄭州	一萬
第廿五師	蕭耀南	湖北武昌	一萬
第廿六師	曹鍈	直隸天津	一萬
第一混成旅	潘鴻鈞	山東	五千
第二混成旅	胡念先	湖北	五千
第三混成旅	張林	江西信豐	五千
第四混成旅	張錫元	察哈爾	五千
第五混成旅	馬奎武	綏遠歸化	五千
第六混成旅	何豐林	江蘇上海	五千
第七混成旅	張之江	河南	五千
第八混成旅			
第九混成旅	陳光遠	江西南康	五千
第十混成旅	唐國謨	福建泉州	五千
第十一同	王麟	福建關州	五千
第十二同	葛樹屛	直隸	五千
第十三同	董政國	直隸	五千
第十四混成旅			
第十五同	孫岳	直隸	五千
第十六混成旅			
第十七同	張聯陞	湖北	五千
第十八同	趙榮華	湖北	五千
第十九同	張煥相	東林濱江	五千
第廿混成旅	吳長植	山東濟寧	五千
第廿一同	王都慶	湖北	五千
第二十二混成旅			
第二十三混成旅			
第廿四同	王永泉	福建延平	五千
合計			三十一萬五千人
山東			
第一混成旅	張克瑤	濟南	五千
第二混成旅	張懷斌	烟臺	五千
第三混成旅	張培梁	曹城	五千
第四混成旅	張建功	聊城	五千
第五混成旅	李森	諸州	五千
第六混成旅	傅鋒鈺	兗州	五千
第四十七同	施從濱	濟南	五千
補充第一旅	塊寶龍	高唐	三千
第十九混成團	十得志	濟寧	一千八百
第廿混成團	吳毓麟	濟寧	一千八百
合計			三萬八千六百人
河南			
暫編一師	常德勝	江西	一萬
第一旅	啓林鵬	湖北	三千
合計			一萬三千人
山西			
第一混成旅	商震	太原	五千
第二混成旅	馬開松	寧武	五千
第三混成旅	孔繁蔚	汾陽	五千
第四混成旅	趙戴文	遼沁	五千
第五混成旅	張敏	陽	五千
第六混成團	張樹幟	大同	一千八百
第十混成團	倬懷	臨汾	一千八百
騎兵第一團	路福保	遼沁	六百
騎兵第二團	孫乘彝	山陰	六百
合計			二萬九千八百人
陝西			
第一師	胡景翼		一萬人
第二師	張金印		一萬人
第三師	張寶麟		一萬人
第四師	黨仲昭		一萬人
第一混成旅	張鴻遠		五千人
合計			四萬五千人
新疆			
第一混成旅	蔣松林	迪化	五千人
混成團	馬福興	疏勒 構成	一千 百人
伊犂步兵團	劉進科	霍爾果斯	一千 百人
合計			八千四百人
奉天			
第一師	李景林		一萬人
第二十七師	張作相		一萬人
第二十九師	吳俊陞		一萬人
第一混成旅	闞朝璽		七千人
第二混成旅	鄒殿陞		七千人
第三混成旅	張學良		七千人
第四混成旅	蔡本平		七千人
第五混成旅	齊恩銘		七千人
第九混成旅	楊德生		七千人
第十混成旅	裕恩藻		七千人
第十二混成旅	湯玉麟		七千人
騎兵第一旅	張榮		一千二百人
騎兵第一團	穆春		六百人
獨立第二團			一千二百人
合計			八萬九千人
吉林			
第一混成旅	胡永奎		五千人
第二混成旅	丁超		五千人
第三混成旅	李夢庚		五千人
第五混成旅	蔡永鎭		五千人
合計			二萬人
黑龍江			
第一混成旅	英順		五千人
第二混成旅	張鳴九		五千人
第三混成旅	巴英額		五千人
第四混成旅	張煥鵬		五千人
騎兵第一團	袁慶恩		一千二百人
合計			一萬千二百人
熱河			
第一混成旅	德楊生		五千人
察哈爾			
第一混成旅	譚慶林		五千人
綏遠			
騎兵第一團	李西峯		六百人
江蘇			
第二師	朱熙	蘇州	一萬人
第一混成旅	馬玉仁	宿遷	五千人
第二混成旅	黃振奎	江都	五千人
第三混成旅	李殿臣	南京	五千人
第四混成旅	英恒	南京	五千人
第五混成旅	陳調元	海州	五千人
第七十六同	張仁奎	南通	五千人
合計			四萬人
安徽			
第一混成旅	馬聯甲	蚌埠	五千人
第二混成旅	李傳業	太平	五千人
第三混成旅	王普	蚌埠	五千人
第四混成旅	昌錦	蚌埠	五千人
第五混成旅	史俊玉	安慶	五千人
合計			二萬五千人

右調査에 據하면 現在中國全國軍隊는 六十五萬五千六百人이라더라

朝鮮鐵道收入 十一年度

朝鮮鐵道十一年度收入은 推定二千六百八十萬圓內外가 되리라는데 其中客車收入千二百四十萬圓前後, 貨車收入約一千二百八十萬圓이 될지니 此를 前年度에 比較할 時는 旅客收入約五分, 貨車收入約三分이 增收하얏고 十一年度의 營業情況은 水害의 被害及一般財界의 梗塞을 蒙한 地方產業의 關係上으로 荷物出廻에 影響을 波及하얏스나 好調이라 可謂할지오

客車收入의 增加原因은 一般의 交通이 頻繁함과 且漸次充實함에 從하야 利用하는 者가 增加하얏슴과 一面으로 日本에 博覽會가 開催된 事等關係가 左의 結果인 貌樣이며 貨車收入의 增加는 一般이 財界事情과 沿海의 航船開競爭上關係及物貨의 出廻가 閑散치 아니하얏스나 尙且京義線에 依하는 滿洲粟의 移入及朝鮮內의 石炭消費量이 減退치 아니한 所以이니 此等의 移入으로 因하야 緩和된 者이라 大抵日本으로부터 移入되는 貨物은 不况을 呈하얏스나 對滿洲間의 關係는 益益接近되는 形勢이니 今에 此를 各線으로 區別하야 見한즉

●京義線 全收入의 大部分은 同線에 依한 者가 多하고 特히 粟의 移入과 如함은 頗히 盛况을 呈하얏스며 沿線諸工業이 一般財界變動의 影響을 受하나 尙且加工品의 移出入은 가장 注目할 價値가 有하며

●湖南線 開通以來他線에 比하야 成績이 不振하고 且沿線物資가 穀類에 限定한 事는 輸送貨物이 殆히 一時的에 止하는 觀이 有하며 十一年度는 滿洲粟의 移入이 多量에 達한 事는 同地方의 米移出이 增加하고 一面으로 注入된 物資가 增加되야 或期間에 出廻가 好况이엿나니 前年度의 狀勢를 挽回함에 至한 貌樣이며

●京元線 從來沿線의 物資는 極히 貧弱하나 浦鹽方面及東海岸一帶의 需要物인 鹽干魚等에 對하야 浦鹽及沿海의 鯨十鹽魚等의 移入으로 僅히 命脈을 保持하든 바 浦鹽赤化의 結果同方面間의 取引이 杜絕하얏슴으로 不振을 免케 못한 狀態이며

●京釜線 旅客收入은 他線에 比하야 顯히 優良하얏스나 沿線에 特殊한 工業都市가 無함으로 貨車收入은 他線에 比하야 不良하고 其他의 線은 前年과 比하야 大同小異한 狀態인 貌樣이며 此趨勢를 綜合하야 十二年度에 見하면 上으로 見하야 十二年度에 一般財界가 漸次一轉機에 達하고 良好하게 되는 情勢이나 此는 果然鐵道上에 如何한 程度까지 達하는지 아직 問題中이므로 多大한 期待를 望키 難하고 此等의 點으로 見하야 更히 私設鐵道의 延長等은 地方產業에 好影響을 與하야 荷物의 出廻에는 三分可量이 增加할지오 旅客收入은 客車增發等運轉의 度數가 增加하는 同時에 此利用者가 增加할지오 更히 對日本關係가 密度하게 됨으로 五分이 增加할 줄로 想하는 터이라 그러나 一面으로 各地의 諸施設을 待하야 計畫과 如히 增收할 與否는 問題이니 一般財界의 變化와 共히 아직 樂觀키 難하다더라

京城市中物價

朝鮮銀行에서 調査한 二月中京城市中重要商品三十一品種中騰貴한 者十八種, 低落한 者四種, 保合九種으로 朝鮮內生產品指數二四〇、三八, 輸移入指數二一一、一三, 總平均指數二二六、二三인데 前月物價를 百으로 計算할 時는 生產品五分二厘五毛, 輸移入品一分七厘, 總平均三分六厘二毛가 小騰하얏는데 前月과 比較하면 左와 如하더라

品名	二月中指數	一月中指數
玄米	二五八	二三六
精米	二〇七	一九八
大麥	二〇一	一八七
小麥	二〇七	一九八
大豆	二三七	二〇一
小豆	二六〇	二三三
明太魚	五六二	五〇二
鹽	一四七	一三三
木綿	一八八	一五六
鐵原油	三三〇	三〇〇
木材	三三三	三三三
松薪	二九一	三二九
炭	二八八	二九〇
紙	一七九	一七九
牛皮	一三七	一三八
總	二四〇、三八	二三八、三八
輸移入品		
麥粉	一四八	一七七
砂糖	二九四	二八五
醬油	二〇五	二〇六
清酒	三三七	三三七
麥酒	二一八	二一八
綿米	一八四	一七七
和金巾	一九四	一九四
支那綿	一九三	一八二
棉花	一三六	一三三
石油	二五〇	二五〇
石炭	二五三	二五三
燐寸	一四六	一四四
木材	二一四	二一四
金物	一七三	一六〇
洋紙	一八六	一八四
平均	二一一、三〇	二〇七、六〇
總平均	二二六、二三	二二八、三三

關稅撤廢影響

恒常燃料와 動力의 大問題에 製肘되야 有하얏스나 漸히 戰災가 了한 朝鮮工業界는 아즉 成功치 못하얏다고는 言치 못하나 戰爭當時好況의 反動으로 昨年來財界는 萎靡沈衰가 其極에 達하야 本年度에는 幾分이나 轉換의 感이 有하나 아즉 全혀 其範圍를 脫치 못하얏고 京畿道工業界에 在하야도 其工場組織과 又는 副業的의 別이 無히 共히 不安과 動搖裡에 低徊한다고 言할도 過言이 안인데 最近에 在한 工場은 九百四十六을 算하야 全朝鮮의 約百分의 六十을 占하얏는데 左에 此의 種別內譯을 示하면

種別	工場數	(動力使用)
纖維工業	四二	(九)
窯業	七二	(三)
鐵工業	八三	(三五)
金屬細工業	四二	(二)
製材及木工業	四四	(六)
車輛船舶業	一〇	(二)
精米業	二四	(一〇〇)
釀造業	六一	(四)
食料品業	九二	(四)
煙草製造業	四	(四)
紙加工及印刷製本業	六七	(三三)
製皮業	六六	(三一)
化學工業	四三	(一八)
電氣及瓦斯	六	(一六)
雜工業	一〇九	(一一)
計	九四六	(二九五)

資本金 二七、九四四、〇〇〇圓
從業者 二一、一九四人
生產總額 六七、五六七、四一七圓

括弧內는 動力을 使用하는 工場인데 總工場의 約百分의 三十一에 當하고 然而使用하는 動力은 電力、汽力、瓦斯力인데 大體左의 比例라

電動機	三六臺	四、七六二馬力
蒸汽機關	三六	八、六三五
內燃機關	一五	三三九
計	一〇四	一三、七一六

美展會場決定

第二回朝鮮美術展覽會의 會場은 昨年과 如히 永樂町商品陳列館으로 決定한 바 會場의 設定에 對하야는 相當히 苦心하야 各方面으로 調査하얏스나 各種의 事情으로 支障이 有하야 總條件을 具備한 完全한 會場을 得키 難한지라 德壽宮石造殿內部의 裝飾이 美를 盡하얏슴으로 會場으로 「바크」用幕을 張하고 額을 懸하야 相當한 設備를 施함에 釘一個도 打함을 許키 難한 事情이 有하야 結局陳列場所로는 現에 使用하는 商品陳列館이 比較的適當한 줄로 認하고 如右히 決定한 터이라 將來美術의 發達에 伴하야 何如間特히 會場을 新築할 必要가 有하겟더라

排水工事費

龍山排水工事費는 大正十年度及大正十一年度의 兩年度에 借入할 豫定이엿스나 年期支出方法의 變更에 伴하야 起債借入方法을 變更하고 大正十年度七萬三千圓大正十二年度七萬九千圓으로 하고 償還方法을 大正十年度로부터 同十二年度까지 하야 大正十三年度로부터 同二十二年까지 至하는 十個年賦로 償還하게 되얏다더라

商議所評議員會

京城商業會議所에서는 來三十日午後二時부터 臨時評議員會를 開하고 左의 件을 附議한다더라

一、第六回朝鮮商議聯合會提出議案及出席委員選任件

二、第五回鮮滿商議聯合會出席委員選任件

三、廣告資料展覽會開催에 關한 事

公設市場小賣值段

品名	單位	值段
海老佃煮	百匁	八十錢
海苔佃煮	同	四十錢
守口漬	同	三十五錢
大根粕漬	同	十五錢
金山寺味噌	同	十八錢
時鳥卷	同	四十五錢
鮎佃煮	同	八十錢
麥味噌	同	七錢
推茸	十匁	三十錢
高野豆腐	十個	十五錢

商況

大阪三品 三月廿三日前場

	初付	止値
三月限	二四四、〇〇	二四三、二〇
四月限	二四四、〇〇	二四四、〇〇
五月限	二四五、八〇	二四五、九〇
六月限	二四七、九〇	二四七、六〇
七月限	二四九、六〇	二四九、三〇
八月限	二五〇、五〇	二五〇、〇〇
九月限	二四九、五〇	二四九、二〇

㊅ 仲買店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店主 堆浩
電話 一八〇番
電話 二三一番

大阪株式 三月廿三日前場

銘柄	寄	引
大株	一二二、五〇	一二二、五〇
同新	九二、八〇	九二、九〇
鐘紡	二九八、五〇	二九八、八〇
同新	二七七、九〇	二七七、五〇
商船	四九、〇〇	四九、〇〇
同新	一四、六〇	
郵船	九八、五〇	九八、六〇
同新	三八、六〇	三八、六〇
東紡	一三〇、一〇	一三〇、六〇

仁川期米 福 小林藤右衛門

	寄	後場	引
仁新	四七五〇		四七五〇
安取	二五四〇		二五五〇
大新	九一〇〇		九〇四〇

㊈ 仲買店
仁川府港町五丁目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店主 鄭相鎬
電話長一〇〇六番
電略「〇ナ」又ハ「ナ」

京取	五七〇〇	五六四〇
仁新	四七三〇	四七一〇
安取	二五一〇	二五一〇
大新	八九九〇	八九七〇

綿糸布時勢 三月廿三日前場

品名	價格
粗布三A	二七七、〇〇
同九龍	二七〇、〇〇
同大A	二六〇、〇〇
同金幽	二四七、〇〇
同金剛山	二三七、〇〇
同鶴同	二八九、〇〇
木納絹作	一、一三
細布飛犬	一三、八〇
同世榮島	一二、八〇
納金布進軍	一三、九〇
同金剛	一三、五〇
綿糸扇面	二六八、〇〇
雙女	二四四、〇〇

仁川府港町五丁目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高橋謙三
電話長 九一五 九一六番
電信略號(ミツワ)

仁川期米 三月廿三日前場 (突然暴落)

再昨後場은 局勢가 殆히 硬張하야 大阪初付三十圓九十六錢의 情報를 據하고 二十六圓〇九錢에 始하야 二節十一錢으로 四節에 至하야는 待戾의 賣物이 現出하야 二十六圓까지 瓦落하엿다가 阪地止値三十一圓〇三錢인 依然硬勢임을 伴하고 五節에 俄然 止하엿는데 一休今後場에 入하야 大十九錢으로 奔騰한 後十一錢에 場을 阪三十圓九十錢으로 三節八十三錢인 突落의 報를 接하고 人氣亦軟弱에 傾하야 立會하니

▲第一節 當中兩限은 不成이나 先限은 二十五圓九十錢으로 再昨止價보다 二十一丁低히 初付하다

▲第二節 阪地四節七十五錢으로 九節五十九錢인 又復瓦落의 報를 接하고 當中兩限은 亦不成이나 先限은 七十五錢의 始하니 局面이 수혀 軟勢되야 五十五錢까지 崩頹하엿다가 更히 七十錢으로 騰한 後六十二錢으로 下押하야 止하다

▲第三節 阪地六節五十二錢인 稍漸頹勢임을 接하고 當中兩限은 不成이나 先限은 五十九錢에 始하야 四錢까지 下押하엿다가 反히 六十錢으로 奔騰한 後五十七錢에 止하다

▲第四節 阪地七節五十二錢인 情報를 接하고 當中兩限은 亦不成이며 先限은 五十九錢에 始하야 六錢까지 瓦落한 後六十錢으로 返戾하야 五十九錢에 止하다

▲第五節 當中兩限은 亦不成이며 先限은 六十錢에 始하니 此圓은 膠着하야 一口로 止하다

▲第六節 阪地八節六十二錢의 情報를 伴하고 當中兩限은 不成이나 先限은 六十七錢에 始하니 此際에 阪地九節五十九錢인 小落의 報를 傳함으로 局面을 又復小弛하야 五十八錢까지 反落하엿다가 五十九錢에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가 三十六丁이더라

初付	二十五圓九十錢
止値	二十五圓五十九錢
高値	二十五圓九十錢
安値	二十五圓五十四錢
公定價格	
一節	二十五圓九十錢
二節	二十五圓六十三錢
三節	二十五圓五十八錢
四節	二十五圓五十八錢
五節	二十五圓六十錢
六節	二十五圓六十一錢

廿三日後場(電話)

初付	二十五圓二十九錢
止値	二十五圓三十八錢
高値	二十五圓四十錢
安値	二十五圓十錢
公定價格	
一節	二十五圓二十九錢
二節	二十五圓三十一錢
三節	二十五圓三十九錢
四節	二十五圓十九錢
五節	二十五圓三十一錢
取組高	
當限	一千二百石
中限	四千二百石
先限	四萬八十五百石
總賣買石數	十三萬八十一百石
本期總取組高	一二、五九七、一〇〇

㋮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廣澤正次郎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長七〇番 一八五番 一六〇番
仁川宮町廣澤米穀部 電話長三〇七番

波瀾重疊의 局面

爾米一個月을 亘하야 政府의 買上이니 古々米의 拂下이니 重要視하든 材料는 既히 前代事가 되고 今日의 現勢를 觀하면 特筆할 材料는 無하고 市場一流筋의 相支하는 勢力이 자못 宏大한 模樣이라 就中注目할 店은 ⑦의 貿對인 ⑦朴文尚筋買物과 ⑦筋의 買防이 殆히 優勢를 得하야 再昨後場에 二十六圓臺를 突破하고 十九錢까지 奔騰하엿든 一硬勢가 一休今朝에 入하야 大阪情報의 俄然奔落과 共히 亦牽制되야 二十五圓五十錢臺로 瓦落하엿는데 此는 亦買方一派의 威力이 또한 放任치 안이하는 目下現狀인 바 此로부터 場面은 非常한 興味를 呈하리라더라

綢緞布木時勢

三月二十三日 大昌貿易株式會社調

緞屬時價

品名	價格
三端(五麟一、龍光)永紬	六、四〇
同 無紋 永紬	六、四〇
同毛本緞 正牌	一六、五〇
同 上品	一五、〇〇
同 雜牌	九、五〇
法緞 上品	三八、〇〇
同 普通	三七、〇〇
三端正牌甲紗	九、〇〇
同 上中牌	六、〇〇
三端副牌甲紗	三、八〇
甲紗上	一九、五〇
甲紗普通	一六、五〇
同純仁、花純仁	九、五〇
同熟素、花熟素	一〇、〇〇
熟庫紗	
熟庫紗五彩花頭黑紫幷每方	二、五〇
生庫紗五彩花頭黑紫幷每方	二、四〇
甲紗雙金花頭三十方	二八、〇〇
同全金花頭三十方	二六、〇〇
同中金花頭三十方	二四、〇〇
毛本緞五彩花頭黑紫幷每方	二、八〇
四端毛純仁正牌	五、五〇
同 普通	五、〇〇
四丈別紋花官紗	二三、五〇
七色官紗上品	一七、五〇
同 普通	一五、〇〇
三丈別紋官紗	一三、五〇
同 大花官紗	一三、五〇
同改良十景官紗	七、八〇
同普通十景官紗	五、七〇
四八銀羅紗	八、〇〇
五丈三尺唐元羅	二九、〇〇
同 五足 同	三〇、〇〇
四八老紡上品	一七、五〇
同 普通	一五、五〇
五丈羅官紗	二九、〇〇
同 素官紗	二九、〇〇

朝鮮產紬苧布 (一疋)

品名	市價
鐵原紬 上	一四、〇〇
同 中	一一、〇〇
日紬 白	七、五〇
同 各色	八、五〇
韓山白苧上	一三、〇〇
同 上中	三〇、〇〇
同 中	八、〇〇

粟 外米 雜穀

肥料 (豆粕 硫酸安母尼亞)

㋗ 福島邦一商店
仁川府本町四丁目
電話長 一〇一四番
振替京城一二〇一三番
電略『ク』又ハ『クミ』

京城市場 前場保勢

休日前은 稀有動機로 止한 바 今朝大新이 九十一圓五十錢과 步調二百七十四圓六十錢으로 入電되매 本場人氣는 觀望하는 狀況으로 立會하니 京取는 五十八圓六十錢에 寄付하야 步調四九十錢으로 止하엿는데 手振에는 賣方市川中津方奎煥田中坂田中井口이고 買方은 熊村塚對有田坂田인 더 少數取引되엿고 仁取舊는 賣買不成이고 同新은 四十七圓五十錢寄止同樣이고 安取는 二十五圓四十錢寄付하야 步調三四十錢으로 五十錢에 止하고 大新은 九十一圓寄付하야 步調九十圓九十錢과 七十錢으로 四十錢에 止하엿고 京取來週五十九圓鮮銀低九十三圓七十錢京信五十一圓五十錢殖鐵八圓八十錢勸信七圓四五十錢中央十二圓六十錢으로 止하더라

㊥ 仲買店
株式會社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趙大衍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長九〇三番

後場京取暴落

前場은 觀望하는 狀況으로 止한 바 後場은 買方嫌氣投物과 賣者打印하는 狀況으로 立會하니 京取는 前止보다 一圓六十錢低한 五十七圓 付하야 步調六圓八十錢으로 六十錢까지 下押하고 其後七八十錢으로 七圓까지 小復하다가 更히 六圓九十錢과 七十八十錢으로 結局新値價四十錢에 止하엿고 大新은 八十九圓九十錢과 七十錢으로 步調五六十錢으로 七十錢에 止하더라

	前場 寄	前場 引
京取	五八六〇	五八六〇

京取市場賣買價 廿三日

株名	今週中 前場	今週中 後場	來週中 前場	來週中 後場
京取	—	—	—	—
仁取	二六七〇	—	—	—
同新	四七五〇	—	—	—
鮮銀	九三五〇	—	—	—
同新	二四四〇	—	—	—
殖銀	四九八〇	—	—	—
同新	一三〇〇	—	—	—
鐵銀	一三六〇	—	—	—
商銀	四四〇〇	—	—	—

株名	今週中 前場	今週中 後場	來週中 前場	來週中 後場
同新	三九〇	—	—	—
漢銀	三九〇〇	—	—	—
同新	九七〇	—	—	—
韓一	三八〇〇	—	—	—
東拓	三六七〇	—	—	—
同新	二七五〇	—	—	—
鮮土	二六〇〇	—	—	—
朝紡	一三五〇	—	—	—
滿毛	九二〇	—	—	—
京電	六二〇〇	—	—	—

株名	今週中 前場	今週中 後場	來週中 前場	來週中 後場
電興	二六〇	—	—	—
朝郵	三四四〇	—	—	—
殖鐵	—	—	八〇	—
中鐵	三三〇	—	—	—
同新	一〇〇〇	—	—	—
滿鐵	一〇五〇	—	—	—
同新	三三〇〇	—	—	—
東京	一二〇〇	—	—	—
同新	—	—	—	—
朝燐	—	—	—	—

獨逸懷中時計到着
既히 定評잇는 本品은 甚多以來品切中이든 바 今回小數入荷되얏사오니 卽時御下命하심을 伏望하오며 但代金引替는 金卅五錢實送을 하시압소서

니케르 十六片양흥器機 金五圓八十錢
同上 十八片 金五圓四十錢
輸入元 京城府本町二丁目 正午堂
振替京城三五七二番 私書函本局一三番

淋疾及梅毒
如何한 難治의 淋疾及梅毒이라도 通知하시면 全治을 無料送附함
京城府茶屋町一三四 宋榮祚

朱子家訓
右冊은 朱夫子(熹)治家法과 家庭要約에 戒子書와 士農工商間에 治家와 敎子에 最要하오니 僉君은 速買하야 子孫을 敎訓하오
一冊定價金五十錢
京城武橋町參番地 發行實所 廣成醫院
京城南大門通十七番地 發行實所 滙東書館

健腦養精神聖藥劑
至靈散
怔忡眩暈症을 根治하고 記憶研究의 實力을 培養하는 理想的卓効가 有하오니 四海諸氏는 時急試服하시압
(主治効能) ○健忘○驚悸○精神倍壯 ○眩暈○怔冲○聰明益智
定價 一日分 金二十錢
朝鮮京城崇二洞百四十番地
河慕堂藥房

金銀白金美術特製 都賣 散賣
潤光商會
京城鍾路四街
主 金潤冕 主任 金仁植
電本 九三七

建議提出을決議
新聞紙法、出版法改正期成會에서
재작이십이일시내명월관에서 데이차회의후결과만장일치로

시내에잇는각서적업(書籍業)자와 출판업(出版業)자와각신문잡지사와법조계(法曹界)에지방라하야신문지법과출판법개정긔성회를조직하얏다함은이미보도한바이니와재작이십이일오후여덜시에시내명월관에서데이차로회의를열엇는데상임위원제씨가 그동안연구한결과 각국에건의서(建議書)를데출하는동의가 만장일치로가결된바실입위원에이미준비긔초하얏든 건의서초안을랑독하되 글이도리나밝을생안이라 우리조선사람의인날아지바다오든 그총판법과신문지법의 불공평함과결함되는덤을유루업시들어말한바만장일치로통과되야불일간데출하기로 하얏는데당일에도이번에 직접리해관계가잇는출판계나 언론계인사는물론이오 법조계에서도다수히출석하얏더라

旗艦「名取」爆發
긔관대위외십여명사상

남양(南洋)방면에출동중이던일본데이함대(第二艦隊) 데오전대의긔함(旗艦)명취(名取)는지나간십여일에 긔관(機關)의 일부가폭발되야 긔관대위(大尉)외에 십여명의사상자를내엿스나손해는만치안어한바그군함은자력항행(自力航行)을계속하야 작일더긔에횡수하(橫須賀)에입항할에뎡이라더라(횡수하던보)

頻頻한爆發聲
再昨午後四時南山町에서
경찰관들은부근일대를수색한결과 료리집부억아궁지에서일어난폭발

재작이십이일오후네시십분경에시내본뎡경셩뎐긔회사(京城電氣會社)근처에서 별안간폭발소리가광하고일어나며 경셩안을진동하엿스며 이소리를들은시민들은또다시어느곳에서 폭발탄이나터지엿나하야 길거리로왕래하든사람은 가든발길을멈치고 집안에서일을하든사람은 문밧그로뛰여나와자세한소식을알고자 서로귀를기우리고수군수군하엿스며경긔도경찰부에서는보안과원(保安課員)이전부출동하야경비출장소(警備出張所)원과합세본뎡일뎡목을수색한결과폭발탄은불수도입고다만남산뎡(南山町)이뎡목이십칠번디료리뎜화선(料理屋花扇)이라는집에서씨레기(塵芥)를불에석일때에무엇인지그속에들어잇든물건이 폭발된것으로판명되엿는데원인은아직서지알수업고 방금됴사중이라더라

守備隊를解散
독립운동이일어날셔에 새로두엇든수원수비티

대정륙년도에 한번해티되엿든수원수비티(水原守備隊)와 수원헌병분디(憲兵分隊)의 청사에는대정팔년에 세계의이목을 놀래이든독립만세(獨立萬歲)의 소리가 덜니동서에 들님을싸라 수원에서도 디디뎍으로시위를하던것을 아즉도 우리의긔억이 사라지지아니하엿스나 이셔에 불시로수원일경에 위엄을뵈이려고 헤티하엿던수비군은 다시조수 밀니듯이돌어와서 가진짓을다하든 수원수비티는 군비축소문데의 아닭인지웬일인지 오는삼월말일안에 전부해산을 한다는데 그뚝관민들은오

民大發起人
또새로네곳에서

민립대학발긔총회도 압흐로겨우닷세를격한오날에 강원도(江原道)에서는 이삼군을제한외에다수한물이 아즉아무소식이업슴으로 농중비회에서는 민족뎍데사업에실로유감이라고싱각한다하며 또서로이온발긔인의씨명은아래와갓다더라

▲京畿坡州郡 鄭永軫 李輝龍 宋基彪 李鍾哲 尹興秀
▲慶南陜川郡 陳圭奐 鄭淳鍾
▲京畿水原郡 李圭宰 朴琦泳 林苑洙 尹龍熙 金世煥
▲咸南利原郡 姜賢秀 金 鐸 朱翼璜 金河潤

新義州代表兩氏
일간입경할터이라고

신의주(新義州)의민립대학발긔인리회뎍(李熙迪)독고렬(獨孤烈)최윤뎡(崔允鼎)한셕진(韓錫晉)송제원(宋濟元)제씨가지난십구일하오여달시경에당디리태영(李泰永)씨뒥에회집하야 발긔인총회에 출셕할터표를선거한바 리회뎍 최윤뎡량씨로선거되야 일간상경히리라더라(신의주)

民衆演藝
무산자연예가를망라하야 우리민중의고유한음악을

조선로동단데의하나인흑로회(黑勞會) 에서는 무산자연예가(演藝家)를망라하야 무산자련합연예회(無產者聯合演藝大會)를개최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이번에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야연예회일홈을 민중연예회(民衆演藝大會) 라고고치여 가지고 오날저녁일곱시부터 시내경운동(慶雲洞)텬도교당에서개최하야 훨한음악과자미잇는예술을일반람긔에게데공한다는데 그연예의과목은 우리민중의고유한음악과 동서양의긔악(器樂)과 로서아의무도(舞蹈)등을연주할터이오 입장료금은사십전 학생은반액으로한다더라

全朝鮮青年黨大會
今日下午一時부터青年會館에서開催
◇─단톄로일빅여단톄개인으로일빅여인─◇
◇─금일부터조선의중대문데를회의홀터─◇

서울청년회외에 삼여단톄의주최로 전조선청년당대회를개최한다함은 본보에날마다보도하다십히 기다리든 삼월이십사일이닥쳐와서 일반사회에서리더하든터회가 오날로써시작되엿는데 이회의일홈이특별히 전조선의잇는청년당의대회이오 싸라셔조선의장래를지비할사람이 조선의청년임으로 이날참당하는디표자들은물론이오

일반사회
에셔 무슨성공이나우리의전도에디하야 완전한무엇을 하야줄가하고 아지못하는 그무엇을바라는것은 각방면에서 이구동성으로부르는바이다 그런데 저작일까지 각처에서신입한단테가 일빅여단테이오 개인으로빅여인인데 그중에는녀자의단톄도심여단테가잇다하며 조선사람으로는 누구나깁히주목할가치가잇다하는바인데 어번에참가한단테와

개인으로
말하면 전조선에서 유명하다고하는단톄는 거의다출셕하는터이고 개인으로도 자긔의사랑과목뎍을 만흔뉴포에게말하고자하나말할긔회를엇지로하야참고잇든청년들이만히왓슴으로 비록한말이나온다고하야도반다시가치잇는말이나올터이라고지는것은일반에바라는바이며 뎌표자의자톄로도

주의하는
터임으로각사회에서는 금일의전조선청년당터회를깁히주목하고 이어서 무사히개최되얏다가 무사히폐회하기를바라는터이라더라

大會의順序
하오한시부터 주악으로시자

전긔에보도한바와갓치 전조선청년당더회는금일하오한시부터 조선중앙긔독교청년회에서개최될터인데 데일로긔회벽두에류량한음악소리로써 더표를환영하야착석한후에 회장으로부터긔회사를선언하고 디표자를도사한후에 사를드리우고 또다시악디로부터 주악을하야일반의 정신을위로한후에 디표종와보천서를심사하고 오날은이것으로써 휴회(休會)를할터인데일반텽표는반다시시간을 직히여 조금도 억입이업게하기를바란다고하더라

傍聽券을發行
혼잡을피하고자 방텽권을발힝해

금번디회로말하면 일반이 극히고디하는바임으로 금일에는 청년회관에만다시매일터인데 일방으로하야금공긔하야 비밀업시하는것입으로 누구나오는것은조치만은 공연히방청긱이만히잇셔본회의에도혼잡하게할것가트면 이것은도로혀서로히무익하게됨넘려가업지안이함으로 할수업시방청권을발힝하게되얏슴으로 참예오자하는이는서울청년회로 교셥하야면저방청권을어든후에 현장에오기를바란디더라

水平社와國粹會가또爭鬪
二百名의警官이出張鎭撫
청부업자의개인간감정으로 각각수삼빅명의회원이출동

일본내량현(奈良縣)긔성군(磯城郡)에서수평사(水平社)와 국수회(國粹會)원간의전투가재우해결되자 지나간이십이일밤에 대판부(大阪府)고안촌(高安村)에서또수평사원과 국수회원간에쟁투가어러나서 량방에각수빅명의회원을소집하야 서로흉긔를가지고상지하는형세가 디단히위험함으로 대판부경찰당국에서 오후열한시에비상소집을하야 이빅여명의경관을당디에파송하야 진압에노력한결과 작일셔벽에간신히해산하얏다는데 그내용인즉대판부수덕관(牧德館)건축의청부인산야학송(山野鶴松)과 동청부인국수회원모의사이에 청부업에관한사건으로분쟁이어러나서 산야가부근에잇는수평사원에게 응원함을의뢰함으로 국수회원측에서도그들을디항하고자 각수삼빅명의회원을소집하야 그와가튼쟁란을이르킨것이라더라(대판뎐보)

논이성천읍에수원국장을멀어서송칠연을한다하여수원의민심을별안간뒤숭숭하다더라(수원)

利川도禁酒斷煙
경관은공담비를권하나 일체로거절하고안바더

경긔도(京畿道)리천군(利川郡)모가면(慕加面)에서금주단연(禁酒斷煙)을실힝하기로리왕부터면민간에의론이엇다가금년을려넘월부터그면송곡(松谷)리평(梨坪)두동리에서 구장에하리면에데로실시하고술과 담배를단절하야실힝중이라는데 소관주재소경관들은 권연을가지고단이다가리면을만나면 공담배도안이먹을차이무엇이나고권하면 리면들은 담에수리들은 엇더한담배든지지안이한다고 거절한다는데그경관들이그와갓치하는것은 아마그리면들의단연하는결심이 공고한가안이한가를알고져 시험함인듯하다고한다더라

洪城婦人代表의陳情
작일에총독부를방문하고

홍성고등보통학교 (洪城高等普通學校) 설립에관하야는 루차보도한바와갓치 홍성일군의 인민들이소리를아울너서 분긔하는동시에총남도텽에서열니엿든도평의회 (道評議會) 도이문데로인연하야마침내류회아지되고말어서 홍성일군또는총청남도의문데만 될쌩안이라장차일터사회문데가되리라는경향이입지안이한바인데 작일에보도하홍성녀자부인회디표부인모모씨도필경지작일에경성에도착하야시니공평려관(公平旅館)에 톄저하며작일오전열시에는 성경애(成慶愛)씨와김현경(金賢卿)씨두분이총독부학무국과 내무국을방문하고바로히반셩(半井)학무과장과면회한후여러가지말을 교환하얏스며 총독과뎡무총감은 아즉귀임하지안이하얏슴으로 직접진정을하지못하고 려관으로도라갓더라

動產引渡訴訟
남편은서로어더가며서 넘날세간을가져갓다고

시내돈의동(敦義洞)칠십칠번디에사는리종태(李鍾泰)는변호사박승빈(朴勝彬)씨를 소송디리로 뎡하고시내적선동(積善洞)이빅십이번디에 사는정항자(鄭恒子)라는녀자를상더자로 경성디방법원민사부에동산인도(動產引渡)청구소송을데긔하엿는데 그내용을드른즉 전긔정항자는전긔리종태의부친리조영(李祖永)의첩이되야 시내운니동(雲泥洞)빅번디에가옥을사서

동거하며
가뎡의모든일을 뎡항자가총찰하든바전거리조영은우연한병으로작년사월구일에사망하얏슴으로 ...

이십삼일
여리한승(李漢升)이라는 사람을정부(情夫)로삼고 동서에서살든집을버리고 시내적선동(積善洞)이빅십이번디에 ...

작만하여
준가장집물을 가져갓슴으로 ... 동산인도청구소송이니 동산의가익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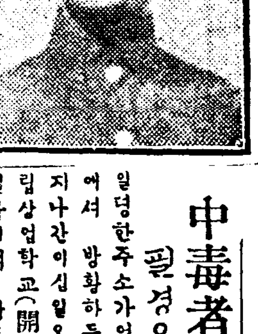
上級校入學願이多數
이전에는졸업만하면사회로만 나가랴하더니이제는모다류학

각학교의졸업식은날을어여긔최되는터인데 작일오전열시에는 시내수송동(壽松洞)에잇는보성고등보통학교와 숙명녀자고등보통학교의졸업식이잇섯는데보성고등보통학교에는신제도에의지하야졸업한학생이 삼십일명중 우등생은두사람이오 구제도에의지하야졸업한학생이삼십이명이라는데 그중에도이전보다가상한바는 이전에는중등학교만졸업하면 사회에나가서사회성활을하라고하는사람이만이잇든터이더니

금년에는
사십여명중에는 모다 가뎡에가서잇겟다는사람이사오인에불과하고 모다고등학교또는전문학교등 상급학교의입학을지원하야 혹은일본으로 혹은중국으로가는사람이 티우만흔바 학교당국자생안이라전조선사회를위하야 경하함을마지안이할바이며 그중에도상급학교모입학하지안는다는사오명의학생도 공부를더하고싶은마음은 만흐터이나 경제사의문데와주위의사정에허락하지안이하야 할수업시못간다고하는터이라더라

淑明에十三名
구제도에는십팔명

작일오전열시부터 거히된숙명녀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신학제에의지한졸업성이십삼명인데 우등셩이삼명이오 구학제에의지한졸업성이여달명인데우등성이한명인바 그학교의졸업성도역시상급학교의입학원자생이오 사회성활한다는사람은전혀업는데 이것도한류힝인지는알수가업스나 음악학교의입학원자가데일만히잇다더라



보성고보우등성 권몽원

濟州의消費殖產組合
토산을장려하고소비를절략코자 유지의발긔로이만여명이대찬동

제주도(濟州島)는조선남해중에잇셔서조선내디와교통이불편함을싸라셔문화향상과산업발달에막디한영향이잇서서셩산품중텬산물을제하고는직조물(織造物)로는 토목(土木)과토포(土布)와토주(土紬)등이잇스나산의을만치못하며해륙물산이더부분이나다하나이고가공(加工)업시 그티로 방리함으로리익은적은중에 인민의소비력은날마다느러감을 따라

무서운
경제곤(經濟困)은 멍렬한긔세로 드러와셔 압루로피폐하가나 우리인민들은 이를방비할긔관이 업슴으로 오늘날와서는어시만인구중에 업을일코 먹을것이업고살곳이업서서곳곳방황하다가맛참내직수공권으로로산설고물선일본으로가며 혹은조선니지로처로류리함으로그돌의어런처자와놀근 부모는 긔갑을 면치못하게되는중유지가제씨는식산(殖產)을장려하야

텬산물을
가공케하며소비력을절약하야 불안한생활을안녕케하고자 제주소비식산조합(濟州消費殖產組合)을 발긔하고지멋날람이 이만여명에 달하야 불원간창립총회를 거힝한다는데일흥롱중에업지못할것을 제한외에는 조선사람의손으로 제조한조선물산을사다쓰며 토산을장려한다함으로일반인민들은

디환영을
하는바 제주전도에긔선(汽船)이긔항하는곳마다 지뎜을두고 각촌락에출장소를셜치한다는바 장러가리우유망한동시에 속히셜시히기를렬망아는중이라하며 창립위원은위원장용전(張容堅)외삼빅륙십명이라더라(제주)

中毒者가自殺
필경은그러홀알

일뎡한주소가업시개셩(開城)시내에서 방황하든리태옥(李泰玉)은 지나간이십일오전열시경에개성공립상업학교(開城公立商業學校)뒤길가에서 단도로자긔의 배를갈나자살하엿는데 그의자살한원인을들으면 그사람은원래「모루히네」의중독자로의지할곳이업서긔한이도골할뿐만안이라「모루히네」주사를하고심호나 한푼의돈도업슴으로이것을비관하고 그와갓치자살한것이라는데 시테는소할경찰서에서검시한후 즉시송도면(松

德川酒商의同盟罷業
아직은풍덕면일부뿐파업이나 장차는덕천전군에서뎌들모양

근일평남(平南)덕천군(德川郡)풍덕면(豐德面)디방에잇는 술장사(酒商)들은 일시에동맹파업(同盟罷業)을단힝하고 군텽(郡廳)당국자들의힘동을비난하야맘지안어하는중이라는데 어문데의내용을터강소긔하건터 전긔군텽에서는다만여러술장사에게디한주세(酒稅)만실수업시밧겟다는생각으로본년도부터토디(土地)또는동산(動產)가튼것을담보품으로더당하라는공문을일반酒상에게보내고일병군령직원을출장케하야일종혹독한취급을함으로일반주상은차라리굴머죽는한이잇드라도그장인한쎡는불수가업다고협의한후 전부연허종을면소에반납한것이라하며 이와갓튼불평은 당군전테에만연하야장차당군전부에더한 주상아지파업을단힝케될형편이라더라(평양)

滿洲情報

女子宣傳隊의出動
지난이일에「막사과」로부터 「합이빈」에도착하야활동중

치사(智多)로부터온소식을들으면 막사과공산당선뎐학교(莫斯科共產黨宣傳學校)는 본년일월에설립되엿는데 본년일월에졸업식을거힝하얏는데 그학생중에는 로동정부에서는 시험삼은「마리아」「바교!」진 ...

兩軍에布陣相望
봉텬군과직예군이 산해관부근일더에

요전에봉직전정설에인간에당자함으로 장작림(張作霖)씨로부터유령(諭令)을발포하야와뎐입을변명하고풍설을취톄하야오더니 근일직예군(直隸軍)에서는이십사단의일부와포병의일부가산해관(山海關)방면으로증가되엿스며 ...

上海에示威運動
이십일긔됴페기에더하야 중국인각단테가련합선뎐

요사이상해(上海)로부터온사람의말을들은즉 동디에서는중국인각단테가련합하야 이십일긔조페기문데에관하야 비밀뎍시위운동을국렬히맥시한다더라

北京學生來奉
려순대련회수문데로 장작림씨를회견코자

避難露人의向滬
상해에미국인의게서 영신구제를바라고

숙명녀교우등성
右로부터 박소제 리례힝 조징순 신응현

鳳翼洞의幼稚園
봉익동례비당안에서 오날오후칠시에총회

시내봉익동(鳳翼洞)십구번디 봉

再昨火災의續報
即死者가一名
원인은아직도됴사중

재작이십이일오전한시이십분경에부산에잇는부산좌(釜山座)란일본인의활동사진관에서 불이낫섯다함은 이미본보에보도한바와갓거니와 불시초는 부산좌에셔나셔 즉시 그집웅씩딕이로 옴겨붓튼것을 부산부내에잇는소방너가처음발견하고 즉시불을쓰기에착수하얏스나원체불길이

무서웁게
사방으로삽시간에 퍼진뒤가될생안이라 추길은륙간동이나되는길가를 건너가서일본인의 재목(材木)뎜으로 옴기여부튼져입으로 할수업시 동세시에일으러 전긔부산좌의전체는지가되고 말게되얏스며 재목뎜으로옴가여부튼불길은 부산부립병원(府立病院)에서지일으러 네시오분경에진화가되얏다는데 불탄곳은동부니부평뎡(富平町)이뎡목십팔번디로부터 동이십삼번디까지열여섯호가 전소되고여달호가반소가되얏다하며 불나원인은뎐긔의루뎐인지 그럿치안으면부산좌에서 불조심을안이한셔문인지아직까지도 됴사중이라하며또산좌터에서 중촌등일(中村藤一五一)이란일본사람의 타죽은시톄한아를발견하얏다더라

釜山辨天町에又大火
부산의큰상점들은전소되고 손해의은십칠팔만원이라고

작이십삼일오전한시사십오분경에부산변텬뎡(釜山辨天町)일뎡목에잇는 박뎡건물뎜(薄井乾物店)뒤일본사람의 목욕탕에서 불이나건물뎜으로옴셔부터 그한처를다티인후에 다시그엽헤잇는원뎐시계뎜(園田時計店)한처를 다티여바리고지우동두시삼십분경에진화하얏다는데 전긔 박뎡건물뎜으로말하면 부산에서는데일가는반찬가기와 잡화상이라하며 또한원뎐시계뎜도 부산에서는굴지하든시계상이라는데 그시계상의손해만해도터약십오륙만원가량이나된다하며 불이난원인은혹말하기를누뎐(漏電)이라고 하나 아직까지는 확실이몰으겟고 손해는모도가십칠팔만원가량이라하고 원인은방금엄중히됴사중이라더라

請債失敗로殺人
돈을안이어어준다고 칼로찔너죽이고셰서

강원도(江原道)회양군(淮陽郡)사동면(泗東面)양수암리(兩水庵里)에서옹긔힝상(瓮器行商)하는 우선만(禹善萬二一)은원래술마시기를즐기여 비록옹긔힝상을 하나 적은 미천을술갑으로 모다소비하고가사에더하야는 도모지도라보지안이하든중에 작년십일월십팔일에전긔우선만은 또한적지안

갑흘길이
부친우일경(禹日京)의소유로잇는술독(酒甕)두셰를가마니가지고나가서술갑을갑기는고사하고또한마것을파라셔일일이부일비모르다마서버린후에다시집에들어와서부모를더한협욕이엇다고하야그이웃에사는박형근(朴亨根)에게더하야약간의금전을취하야달나고청하얏스나거절을당하고

이십삼일
오후다섯시에그동리에사는 정태형(鄭泰亨)이가 창립(昌立)시장(市場)으로부터광목(廣木)소곰(鹽)술(納)동속을사가지고자긔집으로도라가든중에양수암리에셔박형근의집에서술을마시고엇든중에 전거우선만은정태형에게돈어주기를청구하엿스나듯지안이함으로

또혼불응
함으로우선만은 이것을분하게녀기며 정태형을살해하고 그물건을강탈할악의를가지고전긔정태형이가 박형근의집을떠나자기집으로 가는뒤를싸러가다가동막리(東幕里)라는으슥한산골에서 별안간가지고잇든단도를쏘내여 달려드러목과허리를란자하야 그자리에서죽사케하고 그물품을 강탈한 사실이발각되야 경성디방법원 금사국에서예심을맛치고공판으로넘기엇더라

中警의集會取締
합이빈중국경찰에서 저주외국인에더하야

합이빈(哈爾賓)중국경찰서에서는 최근에 저주하는 외국인에디하야 집회결사(集會結社)에더하야 아래와가튼취테령을발포하얏더라

(一)단테의명의로 토론회를허코저하는자는 미리본서에청원하야허가를바들지며 리인으로토론회를 개최코저하는자는 주소셩명직업과긔회취지를기록하야뎐처에방해될언론는 불능함

(二)토론회는합이빈에서는 미회전삼일에 본서에데출할지며 연선에서는오일젼으로함

(三)기회할셔는 일시와기타상세를상표할일

(四)이회(二回)를련속하야토론

佛敎青年會移轉
시내인사동으로

시내간동(諫洞)일빅시번디에사무소를두엇든 조선불교청년회(朝鮮佛敎青年會)와 조선불교유신회(朝鮮佛敎維新會)는본월이십일일시내인사동(仁寺洞)일빅팔십팔번디로이뎐하엿더라

商況

奉天穀物時勢		三月廿一日調査
白米都賣	三斗入一叺	七、四〇
白米小賣	三斗入一叺	七、七〇
小米都賣	一斗에對	一、一三
小 米	一斗에對	一、一八
奉天金銀相場		三月廿一日
金票一元對奉票		一、三五
現大洋一元對金票		一、一二

鄭斗和氏丁憂
청두화(鄭斗和)씨의티인 남작(男爵)청주영(鄭周永)씨는 지난이십일일에레산(禮山)자덕에서 졸서하얏다더라

集會
조선불교티회(朝鮮佛敎大會)에서는명이십오일오후 일곱시반에시내장곡천뎡(長谷川町)십칠번디본회관안에서 강연회를긔최한다는데 연데와연사는아래와갓더라

朝鮮佛敎에對하야 小林源六
佛陀의理想 李一峯
三大思想의圓融 李元錫
獨唱 李在淳

大氣豫報
晴 一時曇
自廿三日午後十二時 至廿四日午後十二時
日出 上午六時三十六分
日入 下午六時四十六分
溫度 廿三日正午五四、五
華氏 同日六時三、六

잔소리
▲사람이칭찬을들으면조코칙망을듯으면분한것은누구던지다그러한것이엇다 그러나칭찬을들은것이도리여망신이되는일도잇는 모양이야▲얼만젼일이라는데 시내어느칭두취량반한이는 그부친이죠선에셔엽지손을엇□는부자요자긔도한림이나한테히며힘세도상당히하는처디인데 그터부인이다긔진갑날에잇지나신이나든현목가의총장단에엇지러마라셔지평정부인으로자처하고마마라여실삭하는 그부인이두팔을덕버리고춤을한바탕추엇는데장단이빈틈업시부전조띠쳐럼꼭꼭들어맛드라나▲그것을그때본기성이그후에어느연회석에 그두취량반을터하야칭찬흐흡벼하야동정이나좀어드라고한는말에다「아이고령감터부인마님은춤을엇셰면그러케잘추서요나는날마다추어도각금장단이세지는데그마님은돌어가신도뎍오란데장단이렁락이업서요참잘추세요」이징찬을들은 두취령감은 그칭찬을첫고는 얼골이벌게지떠 고리를숙이다나 남볼보고 욕만하지안이아면 관계치안인줄알엇더니 칭찬도하기어려운것이야 기성도마이지 제가알엇엇지 해주츔아지게나고칭찬은무슨칭찬이야동정을어느라다가도리여무안혜스울모양이지 ▲그러나그다지부그러운지석음날것이야무엇잇노기성잡아먹을당이도롱룩을쏠으면춤을춘다는데데사라리연레사지

第壹回 全朝鮮少年野球大會
◉參加團體 小學校팀、中學校팀、社會팀
◉參加資格 年齡은不問하고身長五尺以內
◉競技日時 來五月四日、五日、六日의三日間
◉申請處所 京城府宮井洞十二番地
◉但其他事項은右記處에問議
主催 紫霞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

京城府[illegible]洞百十二番地
佛敎學院補缺生募集
科目 佛經 佛史 西哲 東哲 宗哲 宗敎史 倫理 論理 認識 心理 社會學 歷史 英語 世界 語學 書字
教學 每週三十三時間
出願期 四月四日內 高普卒業程度

元山私立 樓氏建仍金女學校
一、募集定員 高等科百名 提出期限三月末日
一、試驗日字 四月二日 四日

外交員募集
布望者는履歷書持參來臨于本會
(但午後에限함)
京城旭町二丁目
極東文化協會

流行帽子는
學生帽 特價 都賣 散賣 廉價大宣傳
四角 三角帽製造專門
歐米各種帽子도具備함
一號 一、四一 二號 一、八一 三號 一、三五 四號 一、二一 五號 一、八一 六號 一、七一
帽子專門商 信光商會
京城鍾路三丁目

感謝廣告
一金參百圓也
本人이父親을爲하야京城府笠井町廣信社喪事部甲組에入社혼지不久에今般父親喪을遭하야此同社에서遠路를不拘하시고社員을派送하시와靈歸極樂을弔祝하신後葬式費와已納혼入社金全部를支拂하야주시여不意喪變에緊用하얏사오니該社에信用과感謝홈은白骨難忘이옵기로玆以謹告하옵나이다
大正十二年三月二十三日
市內社稷洞一二〇番地 金東賢

印材極上技術精密
黑角印各種 象牙印各種 水晶印各種 金口象牙(동달이)各種 黑角象牙(동달이)各種 鹿角象牙(동달이)各種 皮匣入各種 고무印各種 木圖章各種 名啣印刷各種
(各種印材) 迅速酬應은本堂의 精深彫刻은本堂의特色 (直販入賣)
京城府鍾路三丁目十九番地
明心堂印章舖 主 白明天
地方代金引換期日郵送
(名啣印章에三人以上團體로注文時는特別割引이有함)

洋服職工若十名入用
多年經驗잇는者
元山府榮町 金澤洋服商會

廣告
平海黃氏譜所을廣北尙州郡化西面沙山里三〇四番地黃大源方의完設이온니僉宗氏速々修單付送을敬要홈
大宗孫 黃弘模 告白

第一七四回 첫사랑(初戀)(五) 碧霞

여와갓치고더하온일요일은 어연간에 떠로릿다 그러치만공교하게도 그전날밤부터 비가오기시작하야 그날아참까지도 산치지아니하고온다

「오날오후에 문밧산소에를 갓다가오라하얏슴니다만은」

라고옥희는 어린아해가 학교에서 어듸로원족(遠足)을가라하든날에 공교히비가와서 못가게된날 섭허하는것과갓치 재모의얼굴을 처다보며말하얏다 그러치만 영자부인에 그옥희가 실망(失望)하는아담을능히알지못하얏다

「아니지나간공일에도 갓다왓는터 어번공일에는 아니가도조치 무엇을그러케격정할것이잇나」

「네ㅣ아니가도관계는 업지오만은엇전일인지 이번공일에꼭가고십흔성각이드러서 이번공일날을 고대하이섯세오」

「옹ㅣ그처럼가고십흘것 갓흐면못갈것이무엇이야 자동차를타고가는것이엇더해 아마자동차가 그절로드려가는길모퉁이까지만 드리갈걸」

라고영자부인은 적다히말하얏다.

「그러치오만!」

하며옥희는 다시입을열지아니하고섹담으러젓다

지금에비가오고 바람이불지라도 자긔는가라면 갈수가잇섯다 그러치만 그사람은? 라고성각하는옥회의마음은 매우쓸쓸함을늣기이엿다

보통으로로산소에가는사람이 이처럼비오고 바람부는날에 가지아니할줄로 섬각한속 지금에이러케비오는날이라도 가라하는자긔의마음……아니꾀게모자긔부모의산소에 간다하고 그사람을만나보라하는자긔의마음은별안간 붓그러움을늣기이엿다 그리하야옥희의얼굴은 붉어졋다

「아카ㅣ저것보아 무엇이그러케붓그러워서 별안간얼굴이붉어질가 무얼자긔부모의 산소에가는것이 그처럼붓그러울가?」는

영리한영자부인은 벌서이상한옥회의표정을 눈치채이엿다

「아니에오 무엇이붓그러움닛가어마님은 별말삼을다하심니다그려」

라고 옥희는급히아모조록 자긔의태도를 이상하게뵈히지아니하라하얏다그러치만그면화(棉花)갓흔하연두쎔과 귀밋까지더욱붉어젓다

그리하야 그일요일은 어느듯에지내가고 그다음일요일이당도하얏는데 이날은지나간공일날과전연히 청명하얏고눈이부시터양의광선(光線)은 이넓은세상을발게빗취이엿다

어날아참에 옥희는잠이깨인뒤에 침상에서 부시시어러나옷을주워입고 동창암흐로삿가히가서창의「가데。」을 제처노코신선한아참공긔을 마시는그가삼에는별한산무한깃붐을 가득히늣기어엿고 오날은무슨일인지 깃분일을본것갓혓다 그리하야옥희는새수를하라고 급히 아래층으내려갓다

그러나오전중에는 여러가지의일이 엿섯지만은 하나도손에붓지아니하얏스며 재모에게는니며재모와한가지로「피아노」에「바여오린」을 합주(合奏)하엿지만 옥희는원일인지 손가락이써々하야새속로 산종을늘넛다

「아니오날은 엇지해서 어러케맛지가아니할가」

「글세오 오날은무슨싸몸인지몰치만압호고 공연히가삼만두근거리여지오」

하며옥희는「바여오린」을술며시「피아노」위에 올녀노왓다

이써에옥희가고더하든오후는어르럿다 그리하야옥희는급히휴입옷을가라입고 자긔재모에게 산소에간다고말하얏다

그러나다르날에는 곳허락하든영자부인이 오날은엇지한일인지하참동안곰々히성각하다가 마지못하는듯이허락하얏다

오날도동소문밧게는 어전히삽산평념은덜판에는 하연표빛어널너엇고 평산목장에는어느셔에보아도한가한 소들을궁동이들마조터어고 두러누어잇다

어서에전일과한가지로 적순이란재짓아해를 대리고돈암리어귀를 지너어며 산소로한거름々々々갓가히가는옥희의마음은 뎌우이상하게도 두근거리엿스며 또는 다리는엇지한일인지 휘청거리엿다

아ㅣ사람의길흉화복은 누구인들 미리헤아릴슈가! 지금에저옥희가 처녀의몸으로 불길과갓치라오르는첫사랑을 그사람을게 던지려하야갓스나 그사람을와연압게될는지? 또는그사람? 에으로말미암어 이장차옥희의집에서는 엇더한길흉화복의과도가일어날는지 오직운명의신(運命의神)에게맷길뿐이로다

復活의道程에立하야

釜山 金七星

우리朝鮮사람은지금 復活의道程에立하엿다고할수잇슴니다 이朝鮮이라疆土에는復活의曙光이빗처슴은누구라도否認할수업슬것이외다이것은筆者의私見이아니라우리사람들 全體가 거의共認하는바외다 이것은數年以來로우리社會의各程文化運動을보와서알것이오近日에이르러서는國産奬勵運動이우리의血潮를一層더沸騰케하는同時에우리의前程의光明을投한感이잇나이다 그럼으로우리는우리의前途를樂觀할지언뎡조금도悲觀할바는업는것갓슴니다 그러나우리는우리社會에서每日耳聞目睹하는事實을綜合하야볼진던實로憂慮하고慨歎할바가적지안슴니다 여러가지中에도第一憂慮하는바는靑年同輩의心志가不確不通함이외다靑年은社會의生命이오社會의動力이라고하지안슴닛가一社會의文化發展과一民族의興旺은우리의靑年의兩肩에잇지안슴닛가 이큰짐을질일군노릇하는靑年으로確固한心志가업고야有時乎鯨波激浪을엇지뭇니치며有時乎刀山劍水를 엇지지니리오지금우리 靑年의心志는엇더함닛가 우리靑年中에도勿論確固不拔한心志와犧牲的精神으로참일군노릇하는사람이업지아니하나果然여러한사람은曉天의별보기갓흘것이외다아춤에 이主義를贊成하다가저녁에 그主義를排斥하며오늘修養을힘쓴다는어가來日이면懶怠에써집니다이것이時代의混沌한思潮의關係도업지아니하나우리는甚히憂慮하는바이며 둘재는우리의靑年은우리社會의先導者先覺者를넘어冷待하고蔑視하는것갓슴니다아니靑年의머리에는先覺가업는것갓슴니다 이니되나레닌이아니면欽慕치아니할줄압니다 이것은筆者는壯한성각인줄은알지마는우리가깁히성각해볼것이외다 나는이며께생각합니다누구라도民族社會를爲하야일하는사람이면모다欽慕하고扶助해주지아니하면아니될줄아나이다우리社會가아모리新潮時代에잇다할지라도先覺者先導者엿슴은否認할수업슴니다自己는社會에對하야一毫의貢獻이업스면서어社會를爲하야粉身碎骨하다십히일하는先導者를向하야誹謗하고欽慕할이當然한心情이어늘엇찌하연조고마한短處를쇠집어내여誹謗하는일이만슴니다 사람에오萬能의神이아니어든엇지短處가업겟슴닛가?우리는胸度를좀넓히고좀冷靜한머리로事物을洞察합시다 우리는지금부터確固한心志와高遠한理想으로압흐로나아가지아니하면안되겟슴니다新文明輸入에三十餘年이오外國留學한靑年이千萬으로計하겟스나아죽남에게자랑할만한學者하나를볼수업슴은우리깁히慨歎하는바아니오닛가 外國으로가서留學하는靑年은만흔事情으로中途에廢止하는靑年도만치마는혼어는確固한心志가업시어령저령하다工夫를마는것을반어볼수잇스며內地에서두순事業을經營한다는靑年은成功者가하나이어면失敗者가열마나될닛가?이것도周圍의事情이만치마는우리의確固한心志가업슴도事實이외다 여러분! 이의말이過酷한듯하지마는容恕하시고성각해보시오나는決코여러분靑年同輩와갓흔運命下갓흔呻吟下에잇지안으면이런말을아니하겟슴니다

다음은社會先覺者여러분씨一言을告하고저합니다先覺者된여러분의努力은우리도感激하는바외다그러나여러분中에항상態度가不徹底하야우리의疑惑을품게함이만터이다일에나品行이나模範이될만한점이적슴니다이것은우리慨歎하야마지아니하는바외다勞働問題를써들고小作人解放을부르지々면서國産奬勵를써들고消費節約을부르지々면서自働車를모라料理집門前을합부로자랑처름出入하며舶來品으로몸을裝飾하고잇는것을日常우리가보는바외다여러분이다이러함도아니오또料理집갈석는가야되고洋服입을석는입어야하겟지마는何如間우리社會의先覺者로自處하는여러분은넘어過한便이만흔것갓슴니다또여러분中에는同一한目的으로同一한境遇에서잇한다하면서互相協助의精神은적고互相猜忌反目하는일이만슴니다이것은여러분이깁히省察할바이외다 우리朝鮮民族은이제死의關門에서버서나復活의道程에立한잇써에特히自省自戒치아니하면다시엇더한運命이닥치겟슴잇가?

各地報道

高普卒業式

大邱公立高等普通學校에서는去二十日午前十時卅分부터本科新制第一回卒業式과舊制第五回卒業式과師範科第二回卒業式을擧行하얏는데高木校長으로부터卒業證書及賞狀賞品授與를맛친後一場의訓諭가有하고澤田知事의祝辭와在學生總代及卒業生總代의答辭로써式을終하얏는데今番各科卒業生數가合二十八名中本科新制第一回卒業者가十一名이오舊制五回卒業者가十七名이오師範科二回卒業生이十名인中官吏志願者가三人이오上級學校志願者가十四人이오師範科志願者八人이오治産에三人인바今回卒業生中成績이良好한者가左와如하다더라

本科新制第一回卒業生

朴建周、朴容生、朴勝烈、孫癸述、權五埈、權重輝、權世元、鄭泰龍、崔炳爲、金漢錫、姜裕文

本科舊制五回 卒業生 崔熙柏、白寅興、朴弼煥、片茂祚、梁錫贊、李圭錫、李在用、李相殷、黃正鉉、吳聖達、䟽鶴米、許湜、姜元祚、金秉業、金永文、金熹洙、金碣

師範科第二回卒業生李相律、李圭萬、李昌鎬、康龍長、蘇鳳贊、崔同善、金龍澤、金庸燮、金命甲、金鍾献(大邱)

物産奬勵會組織

義州郡威遠面白馬驛에居住하는有意諸氏의發起로朝鮮物産奬勵會를發起하야方今會員을募集中인데成績이良好하다더라(新義州)

一普卒業式

元山第一公立普通學校에서는第二回卒業式을去二十一日午前十時부터同校大講堂에서擧行한바順序를따라校長이卒業證書、修業證書及賞狀授與와來賓祝辭와在徒總代로李洪豐君의答辭가有한後卒業式歌로閉會하얏는데來參者가數百名에達하야大盛況을呈하얏스며卒業生은男子二十八名中에優等生은李洪豐、趙炳珏兩君이요女子六名中優等生은許順敬一人이요六年間在勤生이二名이라더라(元山)

公普校學生募集

全北茂朱公立普通學校에서는今年에募集할學生의豫定數는六十名假量인바志願書가百餘名에達하야豫定數에超過를見하얏슴으로選拔試驗을行한다하며兼하야二學年부터五學年々지의補缺生도若干名을募集하는것과共히四月四、五、日頃에試驗을實行한後곳發表한다더라(茂朱)

金奉善氏熱誠

義州郡古津面土穡洞基督敎會에敎人金奉善氏는信敎가不過一年間이나信仰이敦篤할뿐안이라公益心이富한靑年ㅣ며더나마참禮拜堂에鍾이업슴으로遺憾으로思하야鍾一座를寄附하얏슴으로一般敎友의稱讚々하더라(新義州)

自働車組合의美事

今般茂朱靑年會에서朝鮮靑年黨大會에參加하는代表者三人에게永同間來往車賃을特히半割引하야同情을表함으로靑年會員一同은感謝不已하더라(茂朱)

卒業及進級式

海州郡南旭町海州幼稚園卒業式은去二十一日午後八時에懿貞女學校進級式과兼하야南本町禮拜堂內에서開하얏는데金학선氏의祈禱와鄭재용氏의聖經朗讀이잇고先히懿貞女學校進級生百三十六名에게進級證書와賞品을與하고그다음에幼稚園卒業生二十五名에게卒業證書와賞品을與한後에金영만傳道辭와金광국牧師의祝辭가잇고懿貞學校進級生代表로孔孝珠、幼稚園卒業生代表로吳三省의答辭를陳術하며五百餘名의聽衆은拍手喝采聲이式場을震動케한後閉會하얏더라(海州)

富民普通校의狀況

第一回曙光인修業式

釜山富民公立普通學校는敎育熱勃興에依하야釜山西部一帶의兒童을收用코저昨年四月頃當地에新設한學校이라古澤校長以下各職員의熱誠으로서新設初부터男女生徒四百七名을募集하야校務를擴張하는同時에兒童敎育에充分하며初等敎育의程度로서는實로可驚할만한成績인바本月二十一日에第一回修了式을擧行함에最優等六名、修了者一學年百三十一名、二學年百二十六名、三學年九十二名、四學年三十七名이오其他界級生도不少하며當校學事報告에依한細密한것은紙面關係로大略하는것이나當日式場은學父兄及學生들의喜色이諸先生의勞苦를慰安하며따라서學父兄들은學校家庭側의連絡을取코저兒童保護會를組織할旨로茶菓會를開催하고諸般事項을討議하얏더라(釜山)

禁酒斷煙同盟會

全北井邑郡所聲面登柱里는一百五十餘戶가居住하는中目下經濟困難下에서生活困難을覺醒하고有志鄕元哲、宋榮千、宋鎭炳諸氏의發起로本月四日부터禁酒斷煙兼土産獎勵會를組織實行하야優良한成績을得하얏는데規則은如左하더라

一、禁酒斷煙物産獎勵를實行할事
一、酒類製造者에게는罰金二十圓을徵收할事
一、飮酒하는者에게는罰金五圓을徵收할事
一、吸煙하는者에게는罰金一圓을徵收할事
一、可及的土産을獎勵하되不得已한境遇에는他國物을利用함도無妨함
一、事實이發生한時는共同으로罰金을徵收하야公用에充用하고發現者에게五分의一을劃給할事

(井邑)

井上茂氏의美擧

醴泉警察署長井上茂氏는當地에赴任한지五個星霜에地方人民을爲하야公私間奮勵함으로一般人民은稱頌不已하던바去八日奉化警察署長으로轉任하게된바氏는醴泉靑年會館建築에對하야金七百圓을寄付하얏슴으로醴泉靑年諸氏는感謝함을마지아니한다더라(醴泉)

勤儉貯畜組合

全北金堤郡竹山面竹山里는百餘戶의村落에貯畜機關이無함을遺憾으로思하고同里居住하는有志金宗振氏의發起로勤儉貯畜組合을組織하고于今二年間을實行하는組合資本租가二十三石이며組合員이五十餘人에達하엿다는데組合의任員及規則綱領은如左하다더라

一、組合長 金宗振、副組合長 金京辰、理事 李成八
評議員 朴汝圭、金正基、朴鍾洙、金文學、金長學、金順學、諸氏

組規綱領

一、本組合은勤儉力行의美風을涵養하고各人의資財를造成함으로써目的함
一、本組合員은貯畜器를置하고糧米中時々에小許式取集하엿다가每月末에一升五合式本組合에貯蓄할事
一、貯畜方法은一月로四月까지는白米로하고五月로七月까지는大麥으로하고八月로十二月까지白米로하기로하얏더라(新泰仁)

水普校의姉妹會

水原公立普通學校에서는學年試驗이終了하엿슴을機會삼어去二十日姉妹會를開催하얏는바四方에서連絡會集하는父兄이며姉妹는定刻인午前十時前부터不意의好氣를띄운바會場인北向으로新築한大講堂內에는六百餘의學父兄姉妹가着席한後天眞爛熳한어린學生의嚠喨한音聲을吐하며三十餘種의滋味잇고귀여운會話學說에며奇妙姿態를가진女學生의天然特妙한고흔목소리로부르는數回의唱歌로午後一時頃에散會하엿더라(水原)

幼稚園證書授與式

元山長老敎會에서設立한幼稚園에서保育證書授與式을去二十日午前十一時부터廣石洞禮拜堂內에서擧行한바園兒의保護者及白餘名의參列者가잇섯고金牧師의祈禱와園長이四十六名의兒童에게保育證書를授與한後敎師金恩姬孃의祝辭로閉式하고菓子一封式을給與하얏다더라(元山)

耶蘇敎의査經會

禮山郡耶蘇敎에서는本月十八日부터七日間査經會를開催하야每日午後九時부터約二時間同敎會監理司金秉濟氏는熱烈한雄辯으로敎의眞理를說明하야一般聽衆에게無限한感覺을與하얏다더라(禮山)

上沙農民會에義捐

全南順天郡上沙面農民大會를爲하야金員과穀物을義捐한有志의氏名은如左하더라

崔益連粟二石 鄭桂柱白米三斗
李彩奎 李榮珍 朴重寬 鄭榕柱
照瑩各白米一斗 李榮培金四圓
許 演金五圓 李根成 李炳覞
李範寧 朴來香各金一圓(順天)

長陵里에禁酒斷煙

安城郡二竹面長陵里區長沈潤植과有志諸氏의發起로正月十五日洞里에擲柶會를開하고愉快히娛樂한後에消費節約과自作自給이라는意味下에서禁酒斷煙을實行하기로하고在來의吸煙器인煙竹과煙草를多數集台하야全部燒却하얏슴으로該洞은可謂模範洞이라고遠近이稱頌不已하더라(安城)

朝鮮人視察團

哈爾賓日本總領事館에서는朝鮮督府補助로朝鮮視察團을組織하얏는데團員은北滿各地朝鮮人會에서薦擧하얏스며旅費는實費로供給할터이며視察區域은安東縣、新義州、平壤、開城、京城、仁川、水原、釜山等地이요期間은二週日間이며去二十日出發하얏다더라(哈爾賓)

普校卒業生

金泉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二十一日午前九時에第十二回卒業式을擧行하얏는데本校長의式辭가잇슨後에兒童修業證을授與하고同十一時에閉式하얏다더라(金泉)

振興會總會

去十八日論山郡에서郡內各面振興會聯合總會를論山公立普通學校內에서開催하얏는데當日에大盛況을呈한바諸般設備와順序는左와如하더라

一은出品陳列場、一은衛生模型展覽會場、一은一日一善이라名目한小冊子를各會員에게一冊式分給함、一은郵便局과金融組合에貯金宣傳、一、繩叺競技會、一、繩叺競技賞品授與式、一、開會辭는本郡守野田益次郞氏、一、各振興會事蹟報告、一은本道知事代理訓示道地方課長、一은道囑托講話、一은本郡守訓示、一은來賓祝辭、一은閉會、一은當日下午七時地方改良에關한活動寫眞을映寫하고同十時에各自解散하얏다더라(論山)

酒草票返納

慶北尙州郡에서는土産奬勵와禁酒斷煙會를組織하야着々進行中인데洛東面、靑里面에는團體的으로酒草票를同面事務所로返納한다더라(尙州)

各學校修業式

全北全州各學校修業式日割及卒業生數는大槪如左하다더라

三月廿二日 高等普通學校
同廿四日 農業學校
卒業生數二十九人
三月二十三日第一普通學校
卒業生數四人
三月二十四日第二普通學校
同 全州小學校
三月廿三日 女子普通學校
卒業生數六人
三月廿四日 私立新興學校
卒業生數七人(高等科)
三月二十六日 紀全女學校
卒業生數六人 (高等科)
三月廿六日 工業補習學校
卒業生數七人
月廿三日 東山普通學校
卒業生 四十三人(全北)

赤船義勇艦入港

露國義勇艦시유우후에우보ㅣ무號(二千六百五十五噸)는本月十九日午前七時에赤旗를揭揚하고釜山에入港하얏는데該船은二月十七日浦鹽發上海靑島芝罘等에寄港하얏다가今番靑島에서鹽一千三百噸을積載하고歸港하는途中入港한것이라더라(釜山)

四團體聯合講演會

慶北尙州郡邑內에서는尙州靑年會、尙州耶蘇敎會、尙州女子靑年會、尙州佛敎布敎會等四大團體가聯合하야去二十日下午七時부터同郡北門通耶蘇敎堂內에서大講演會를開催하고土産獎勵를宣傳하는目的으로各團體의辯士들은大氣焰을吐하얏스며多數來賓의附演이有하야五百餘名의男女聽衆에게不少한快感을주엇는대同夜十二時頃에無事散會하엿더라(尙州)

順天醫院의善心

黃海道瑞興郡禾曲面新幕驛前居金燮斗 高炳模兩醫師의經營하는順天醫院은開業한지不過三四個月에其成績이良好하야遠近을勿論하고各地方으로부터患者가遝至하는中一醫師는慈善心을主張하야貧民에對하야는親切無料로治療하야준다하며勿論某病하고百發百中으로治療한다하야附近人士는氏의高明한醫術과慈善心에對하야謝頌不已하더라(新幕)

辭令塔

▲편집실한구석에 너붓옷을달니면서 동서남북일을가지고머리를을알타가 적은여가를잇어서 어디로야외의산처을하고저밤을내노앗스나 어듸々々어름잇는명소(名所)는리수가걸니고 또는시간의관계도엇지안이하야 한봉유유하다 는동되분밧청량사로 발을옴기게되엿다 ▲나는차점々々초막골향하고 드러가서 저녁밥을맛치고무료하게기다리고 잇기가 무엇하야공연히 이초막저초막으로 두루돌다가 엇더한으슥한초막 뜰위에불은「실도」양화두켜레가나란히노혀잇는것을 발견하얏다 ▲한켜레는크고 또한켜레는흡사히청녀(淸女)의발이드러갈만한 암부러는생속하고 귀人축은흡나란녀자의 양화한켜레가노엿는데보기의리우이상하드리말이야나의료량에는엇더한량반이 동부인을하고 나왓다가설밥을맛추고 기다리는줄아럿더니마침우리와갓치 점밥을맛추고잇든그엽해방에잇든 엇더한손들이슬금々々비웃는것을보닛가 나의마음에는「로민스」가이상하게뵈이드런말이야▲아모리눈녀여 살펴보아도부부일힝은 안인듯한데더구나의심이나게하는것은 누가엿블가하야그런지 문불쇄닷고귀죽은듯하엿다 나는그남녀가누구이며또는엇더한사정을 가진자인것을좀아러보고저다른곳으로 발을옴기고그남녀의하는 행동만주목하고잇더니 조금잇다가문어덜커하여 그남녀는술금슬금것는질을하여삼십륙게의줄횡랑을부르는데남자는어심여세나된듯양복을입엇고녀자는이십이될낙말낙한데반양복의뭇벙거지를법시엇게언젓는데 감히큰길로도못가고 그두남녀는어둑어둑한밤에청량리뒤산으로옥음을날니든 그모양… 나는하도괴상하여 뒤게누구엽을무론속 그남자 는시외 문밧세 사는 ○병()(○炳○)이오 그녀자는 연의로단발아지하얏던 ○○화(○花)라던가일본서 류학이라고 할셔에 남의게주먹맛던 놀닌가슴어 되야서 또누순주먹맛이나볼줄알고그런지에러키군금한일을웨하는지(嘲笑生)

社告

今般京義線沙里院에支局을設置하고局員을如左選定하야新聞販賣廣告取扱通信事務等을處理케하오니僉位는照亮爲要

名稱 沙里院支局
位置 京義線沙里院驛前
局員職氏名
支局長兼記者 金秉植

朝鮮日報社

市內에서本報를愛讀하시는僉位는收金員에게新聞代를支拂하실時本社販賣係員의領收證을必히受取하시고代金支拂하시믈謹告함

朝鮮日報社

謹告

本支局總務文義煥氏는事情에依하야解任한代에記者尹相德氏로兼任하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朝鮮日報和順支局

洪州分局業務發展에伴하야柳丙秀氏를記者로選定하오니愛讀僉位照亮하시압

朝鮮日報禮山支局

祝朝鮮日報 和順支局發展

和順郡春陽面石亭里 紳士 梁在鴻

나는도선사람이 옴겨도선이자를 애독하나이다

和順郡春陽面 書記 鄭淳燮
和順郡春陽面 書記 奇昌燮
和順郡春陽面 書記 李基采
和順郡春陽面花林里 宋在律
和順郡寒泉面寒溪里 曹秉茂
和順郡寒泉面政里 具教明
和順郡春陽面 面長 文中煥
和順郡春陽面 書記 吳在東

和順郡春陽面 書記 文寅煥
和順郡寒泉面事務所 書記 曹有煥
和順郡寒泉面事務所 書記 具教承
和順郡寒泉面事務所 書記 李淳在
和順郡春陽面花林里 文春煥
和順郡寒泉面寒溪里 曹秉薰
和順郡寒泉面寒溪里 曹瑢煥
和順郡春陽面花林里 文萬煥
和順郡春陽面花林里 文晉煥
和順郡春陽面花林里 文在煥
和順郡寒泉面政里 具瑢謨
和順郡寒泉面寒溪里 朴弘鉉
和順郡寒泉面寒溪里 朴濟殷
和順郡春陽面石亭里 朴鍾烈
和順郡春陽面花林里 文富煥
和順郡寒泉面寒溪里 曹秉鎰
和順郡春陽面會松里 吳在元
和順郡春陽面陽谷里 李玉休
和順郡春陽面陽谷里 李相鎭
和順郡春陽面花林里 南永老
和順郡寒泉面金田里 鄭淳芳

和順郡寒泉面 面長 曹寅煥
和順郡寒泉面政里 具翼謨
和順郡春陽面會松里 李齊煥
和順郡春陽面會松里 李基珍
和順郡春陽面石亭里 紳士 奇世琯
和順郡春陽面花林里 文喆煥
和順郡春陽面會松里 安昌燮
和順郡春陽面會松里 安弘燮
和順郡春陽面石亭里 區長 金秉權
和順郡春陽面石亭里 金世權
和順郡春陽面花林里 尹乃文
和順郡春陽面花林里 文千煥
和順郡春陽面花林里 李丈玉
和順郡春陽面花林里 金有聲
和順郡春陽面大新里 區長 鄭俊鉉
和順郡寒泉面盤谷里 洪承福
和順郡春陽面會松里 吳在南
和順郡春陽面山湖里 金正煥
和順郡春陽面山湖里 金正熙
和順郡寒泉面金田里 區長 鄭性采

和順郡寒泉面金田里 鄭淳賢
和順郡春陽面龍谷里 具教宣
和順郡春陽面龍谷里 文濟鶴
和順郡春陽面石亭里 洪承俊

祝朝鮮日報 高城支局設立

新北面書記 金溶海
長箭里醸酒所 崔永福
長箭里雜貨商 車昌起
長箭里醫生 趙濟顯

當二十一(水曜)부터 特別新寫眞晝夜大公開

米國스크리닝쿠쓰映畫 寫實 山紫水明 全一卷

米國파나마운도映畫 社會劇 禁酒는難題 全五卷

米國아로社映畫 活劇 馬上의勇姿 全五卷
監督 베오위리ㅣ슨氏 主演 작구호긴氏

米國파도나소나루社映畫 戀愛劇 奇蹟 全七卷
主演 노ㅣ마탈맛치孃 監督 하ㅣ바트부레논氏

漸入佳境하는連續을꼭보시라!

米國에구스셀ㅣ로社映畫 連續活劇 第六回 黑赤의猛鬪 全十五篇三十一卷內 十一、十二篇四卷上場
위긴디암세리ㄱ子大佐總指揮 快男兒도루만손다이子氏 嬌艶에리나후이ㅣ루孃 共演

朝鮮劇場 京城府仁寺洞 電話本局三六二〇番

當二月二十二日부터 …新寫眞提供…

米國유니버살社研究室映畫 二月十四日부터新聞에서提供 寫實 國際時報二號 全一卷

米國유니버살社 喜劇 獅子와子猫 全二卷

米國유니버살會社 特作品 米國유니버살會社直輸品 人情劇 北國의巨人 全五卷

米國유니버살支社作 연도니오모레노氏 主演劇 포링아에濃 連續 不見에手 全十五篇三十一卷 五回 第九篇 異敎에犧牲 第十篇 肉의防禦物

米國유니버살支社作 잘스헛송氏 主演劇 또에세지위크孃 連續 冒險의冒險 全十五篇三十一卷 二回 第三篇 冷血漢 第四篇 銃器의殺者

特約 유社 優美館 電話本局二三三六番

米國파라마운드마가징 寫實 名士의殿堂 全一卷

米國아ㅣ도라이스도映畫 人情劇 惡魔絶滅의白 全七卷

米國골ㅣ드위ㄴ映畫 人情劇 妻가되여서 全五卷 名花포ㅣ린후레드릭孃主演

米國아ㅣ로映畫 最終連續活劇 北國의女王 全十五篇三十卷中 最後十四、十五篇四卷上場

……豫 告……

米國파라마운드映畫 人情大活劇 國境을넘어서 全八卷
兩名優 베데이콘프손孃·윤ㅣ아氏共演
最近作品으로熱狂的大好評에싸혀잇는特別優秀大映畫을이번에 近日公開하겟삽니다

發起總會

日時 三月二十九日下午一時부터
會場 京城鍾路 中央基督敎靑年會館

注意

一、發起人諸氏는出席與否를三月二十五日々지通知하시오
一、三月二十五日々지通知가無한時에는缺席으로看做함
一、上京時에는先히水標町四二、本會事務室로來臨하시오
一、地方發起人은總會日로부터閉會日々지宿舍料는本準備會에서負擔함

注意

一、發起人을아직選拔치못한地方에서는三月二十五日以內로選拔하시오
一、發起人을選拔하야本會로知할時는總會에出席與否々지通知하시오
一、三月二十五日以後에選拔된發起人은追加로處理하되總會에出席치못함

京城府水標町四二番地
民立大學期成準備會